

300여 브랜드를 한자리에, 눈으로 확인하는 **창업 인사이트!**

국내 최대규모 창업상담 박람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월드

Vol.65 2024

점주단체 단체협상권 놓고 요동치는 가맹사업법

Korea Franchise Association

“ **사업확장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 IFS** ”

자세한 부스 참가 상담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2024년
참가업체 모집중**

서울 상반기 24년 3월 21일(목) - 23일(토),
코엑스 C&D홀

서울 하반기 24년 10월 31일(목) - 11월 2일(토),
코엑스 C홀

☎ 02-561-6172 ✉ info@ifskorea.co.kr 🌐 www.ifskorea.co.kr

| 주최 |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 주관 | **RX coex**

착한 K-프랜차이즈는 일상이다

프랜차이즈월드

Franchise WORLD

Vol. 65 2024

+ Cover Story

점주단체 단체협상권 놓고 요동치는 가맹사업법

정무위 기습통과로 여야 대차·필수품목 개선대책 등 규제 강화까지 업계 '한숨'

외식업계, 외국인 인력고용 문 열리다

업력 5인 미만 7년·5인 이상 5년·4월부터 최대 2명 고용 가능

Special Report

산업통상자원부·한국프랜차이즈협, '2023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개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명 중 1명, '프랜차이즈가 팬데믹 극복에 도움'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100조 돌파

공정위,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불공정 경험 점주 전년 대비 감소

주류 세금 인하에도 식당 술값 인하 어려운 속사정

People & Company

김봉건 다비치안경 대표

김태훈 광주·전남지회장



KFA
Korea Franchise Association

franchise *buffet*



먹고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

Sushi-Roll & Salad Bar

정성 가득히 늘 최선을 다하는 쿠우쿠우 입니다.

고객센터/가맹문의 1577-4841



쿠우쿠우
Sushi-Roll & Salad Bar



CREM

당신만의 특별한 디자인
내가 원하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카페창업'하다



EX3
Modular by design



· 2020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 2020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 2020 골드 메타 ADI 어워드 수상

Pulse 75HS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주)에이덴은 딜러사, 지사, 프랜차이즈 등, 약 800여 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커피 머신 수입 회사입니다. 카페 플랜트 관련 기기 및 기구를 유통하는 토탈 카페 솔루션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IDEN
espresso machine www.eiden.co.kr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문의 1577-4036





미식 기행, 답을 찾다 ...

점포별 매장전경



[미도인 종로]

[미도인 강남]

[미도인 성수]

[미도인 홍대]

[미도인 여의도]

[미도인 의정부]

프랜차이즈 산업 혁신 리더 양성 제 13기 KFCEO 과정 모집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식 CEO 교육

24. 03.04 ~ 06.03

(워크숍 2회 포함 13주 과정)

※ 매주 월요일 14:00 ~ 18:00(4시간)

FKI타워(舊 전경련회관)
*서울 여의도 소재



교육비용

500만원 (부가세 포함)

- * 10% 할인 : 회원사 추천자, 2인 이상 등록자
- * 20% 할인 : KFA 회원사(중앙회, 지회),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수료자,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과정 수료자
- * 50% 할인 : KFCEO 교육과정 동문 중 재수강자(FC에 한함)

협회 회원사 입회비 할인

KFCEO과정 수강과 동시에 협회 가입시 납입입회비-할인율100%(1,000,000원)

교육대상

- 기존 및 신생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 및 임원
-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인 및 일반인
- KFCEO 교육과정 동문 중 재수강 희망자 등

혜택/특전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 협회가입 및 각종 프로그램 할인 혜택
- ☞ 멘토제 도입을 통한 개별 코칭 기회 제공
- ☞ 교육생 상호간 친목 활동 (골프, 등산, 원우사 탐방, 총동문회 활동 등)

과정특징

- ☑ CEO 토크쇼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CEO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 ☑ 현장연수
프랜차이즈 현장을 찾아서 벤치마킹하는 현장 세미나
- ☑ 코칭과 멘토링
전문가 및 협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원우 멘토링과 코칭
- ☑ 원우활동 지원
원우들의 사업소개와 홍보 활동
- ☑ CEO 교류
협회, 총동문회 행사 초대 및 CEO 교류 활동
- ☑ 경영 멘토링 포럼
원우들과 함께 토론하는 프랜차이즈 경영 포럼



교육문의

이경희 주임교수 : 010-3785-8406

협회 교육팀 박시정 : 070-7919-4157



(주)아르푸 대표 황은주

아르푸가구는 2000년에 설립한 주문제작 가구 전문 회사 KTA그룹의 브랜드입니다.

KTA그룹은 한국T.A 운영을 기반으로 (주)티오피퍼니처, 국내 및 해외에 직영공장(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소한의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합니다. 직영매장 아르푸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를 즉시 반영합니다.

/ 사업분야

- 창업 가구 | 프랜차이즈 · 레스토랑 · 식당 · 호프&펍 · 카페 · 스터디카페
- 숙박 가구 | 호텔 · 모텔 · 펜션 · 리조트 · 요양시설 · 게스트하우스
- 사무 가구 | 사무실 · 중역실 · 회의실 · 접견실 · 강당 · 휴게실 · 탕비실
- 설계 가구 | 관공서 · 전시장 · 도서관 · 홍보관 · 컨벤션 · 교육/의료시설
- 가정용가구 | 거실가구 · 침실가구 · 주방가구 · 홈카페 · 홈오피스 · 소품 등

/ 아르푸 서비스



01 업계 최고 전문 상담원 배치로 믿을 수 있는 상담



02 20여년 경력의 국내 제조 공장 보유로 누구보다 빠르게 제조 및 납품 가능



03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 또한 확실하게

ONE STOP SYSTEM



/ 아르푸가구 납품현장



이여곰탕



먹보한우



아비꼬



더벤티



달콤커피



카페온화



홀릭 스터디카페



서울대학교



성공하는 사장님의 치킨 서포터, 양계농장!

최고 품질의 치킨 가공품을 공급합니다.



www.chickenfarm.co.kr

<양계농장 대표상품>



35년 동안의 치킨가공사업으로 다져진 R&D 경험과 레시피로
좀 더 맛있는 메뉴를 현장에서 심플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ONE-PACK, ONE-SALE, ONE-COOKING 제품을 선보입니다.

오늘도
김가네

같은 음식이라도, 담아내는
진실한 마음은 모두가 다릅니다.

. 2021년 신메뉴, 치킨마요덮밥 .



(주)김가네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우선시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식업 솔루션 전문 브랜드
제일좋은솔루션

- 배달매출분석
- 트렌드분석
- ERP
- 마케팅홍보

"매장에 꼭 맞는 제품으로, 전문가의 설치와 사후관리까지"

everything in the payment **SMART HONEY**

키오스크

포스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우리는 사장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스마트허니는 10여 년간 외식업과 함께한 (주)제일좋은솔루션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심층 분석을 통하여 제안 및 관리해 드리는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인스타그램 

설치사례 

공식 홈페이지

카메라로 스캔 ▶▶

문의 1899-1271

www.jjssolution.com



Anytime Everywhere

압도적 1등



피자먹다 글로벌 진출



〈태국 마스터프랜차이즈 체결〉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마스터프랜차이즈 체결〉

이것이 진짜 1인피자클라스!
줄서서 먹는 진짜 1인피자



 피자먹다

창업문의 02)354-2021

www.eatpizza.co.kr

매기수 모집 1879 GOLF&Wine 교육과정

와인CEO 최고위과정 51기 입학 안내

CEO 10,000인 클럽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기회, 와인 CEO 최고위 과정 51기로 초대합니다.

- ① 교육장소 : 1879강남와인스쿨
- ② 교육기간 : 2024년 2월 28일(수) ~ 2024년 6월 19일(수)[주1회 4개월 과정]
정규수업 : 매주 수요일 18:00~21:00
주요활동 : 와인사교파티, 반 모임 및 동호회 모임, 워크숍, 졸업여행
- ③ 교육비 : 350만원(기업은행 257-088782-04-011 강남와인스쿨)
워크숍 및 졸업여행 비용 별도

교육 특전 60만원 상당 고병탈 유틸리티 증정

- ④ 등록기간 : 2024년 2월 28일(수) 까지 선착순 마감
- ⑤ 문의 : CEO교육팀 Tel. 1577-7479 www.gangnamwine.com

KLPGA · KPGA 프로와 함께하는

골프 CEO 마스터 과정 12기 모집

교육 기간 2024년 2월 15일 ~ 2024년 5월 16일(매주 목요일) 13주 과정

과정 특징 전담 책임 프로 시스템 운영(1:7로 전교육과정 관리)
피팅 분석을 통한 개인 클럽 제공 / 교육 중 사용(Only 골프화만 준비)
GC QUAD로 클럽 및 스윙 분석 후 레슨 진행

교육 장소 이론 : 강남와인스쿨 교육장(서울 서초구 매현로 16 라시따델라모다 6층)
실습 : 양재 스포타임 골프연습장, 1879골프 피팅센터

교육 특전 VF79 무진동 퍼터 제공(79만 상당)

교육 비용 350만원 수협은행 0079-9191-1879 강남와인스쿨

입학문의 대표전화 1855-1879 www.1879golf.com



33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틀을 깨다!



창업문의
080.868.3355
www.success100.co.kr

자체 공장 보유
업계 최저 원가율

33만의 독창적인
가맹점 밀착관리 시스템
① 33 DCS ② 1030 CARE

손쉬운 운영 가능
인건비 DOWN 효율 UP

HACCP 인증을 받은 모기업 (주)산돌식품은 20년 이상 웰빙푸드를 연구·제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견 식품기업입니다.

제34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모집



모집 요강

기간

2024년 3월 7일 ~ 6월 20일 (15주)

시간

매주 목요일 14:00 ~ 18:00 (4H)

장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강의실 (논현역 6번출구)

모듈 과목

Module 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가맹본부 경영 전략

Module II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과 운영 전략

Module III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전략

특강 프랜차이즈사업 경영전략, 성장전략, 성공전략

견학 프랜차이즈기업 본사 및 물류센터 견학



입학식



견학



수료식



특강

교육 대상

- ◆ 가맹본부 CEO 및 임직원
- ◆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 ◆ 주방, 물류, 유통, 제조 등 협력업체 CEO 및 임원
- ◆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각 1인)

교육 특징

- ◆ 이론과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수료증
- ◆ 미수강 강의 평생 무료 청강
- ◆ 성적 우수자 상장 및 상품 제공
- ◆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열람
- ◆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세미나 등 정보 우선 제공
- ◆ 동문회 조직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활동
- ◆ 원우 간 정보 및 자료 공유와 상호 비즈니스 매칭

제50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모집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징 업무의 A to Z !!!
슈퍼바이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 교육생을 기다립니다.



모집 요강 * 교육비용 : 150만원(VAT포함)

기간

2024년 2월 17일 ~ 4월 20일 (10주)

시간

매주 토요일 13:00 ~ 18:00 (5H)

대상

- ◆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 및 임직원
- ◆ 점포 매니저 및 개인 점포 운영자
- ◆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 ◆ 가맹본부 취업 희망자 등

장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강의실 (논현역 6번출구)

모듈 과목

Module I 슈퍼바이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

Module II 가맹점 진단 및 관리

Module III 가맹점 매출 및 이익증대 스킬

Module IV 평가시험 및 팀별 발표와 토의

과정 특전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수료증
- ◆ 강의 교재 및 실습 자료 제공
- ◆ 슈퍼바이징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열람
- ◆ 성적 우수자 상장 및 상품 제공
- ◆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정보 제공
- ◆ 미수강 강의 다음 기수 청강 가능
- ◆ 취업희망자 가맹본부 우선 추천

과정 진행



입학식



조별과제 토론



조별과제 발표



수료식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

브라더스팩토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 국내외 유명 유수의 가맹사업본부, 대기업 물류사에 다수의 식품 대량 공급 데이터를 통한 안정적인 재고운영의 가능성.
- 인프라를 통한 다수의 식품 생산 및 수입을 통한 합리적인 공급의 가능성.
- HIT 식품 개발 경험치를 통한 Hot item OEM, ODM 기획 및 생산의 가능성.

주요 생산 및 수입 식품 :

- 파인애플 아이스, 패션망고 아이스 등 빙과류
- 수산물 원물 및 가공품
- 건어물류
- 축산물 가공품 등



대표이사 남민수



대표영업사원 김상훈

국내외 식품 제조 (OEM) / 수입 / 가맹사업본부, 대기업 물류사 니즈에 맞춘 PB 개발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nonstop으로 전문 해결사들의 노하우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33-4399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BROTHERS FACTORY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4길 22, 빌딩모노폴 3층



www.songlimpaper.com



100% 천연펄프로 환경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최고급 펄프원단을 사용하여 식탁의 문화를 선도하는 냅킨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뢰

컨설팅

디자인

인쇄

패킹 및 적재

납품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63번길7 Tel: 031-977-6810 Fax: 031-977-6825
품목: 인쇄냅킨, 디너냅킨, 해동지, 테이블냅킨, 핸드타올, 점보롤 E-mail: 7booming@naver.com

송림특수제지

귀를 사로잡다, 마음을 사로잡다

소비자의 마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라디오 광고로 당신의 브랜드를 들려주세요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마음이 열릴수록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30년 라디오광고 독심, 애드콤이 함께 하겠습니다.



애드콤은 어떤 광고회사인가요?

끼 넘치는 사장님과 통통 튀는 직원들이 뽀뽀 뽀뽀 가장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광고대행사로,
수많은 정부기관, 프랜차이즈업체들과 파트너십으로 오랜 세월 통련해온 라디오광고·CM송 제작 베테랑 광고대행사입니다

어떤 광고를 제작했나요?

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감사원, 기획재정부, 한국예탁결제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광주시,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LH한국토지주
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연천군, 울주군, 태백시 라디오캠페인, 수협중앙회 CM송, 충북농협 아리향CM송, 경기도
광주시청 CM송, 영월군 CM송, 강원도립대학교 CM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CM송 등
일반기업 마리오아울렛 CM송, 에덴낙원RCM, (주)해피푸드 김영희동태짬&코다리냉면RCM, 양키캔들CM송 제작, 돌돌치킨
TVC, 벌교꼬막 꼬마시CM송, 취영루RCM 등



The Nocul Life
노을 라이프

1688-4405

이별의 아픔
노을라이프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The Letter from President

021 정현식 협회장 인사말

The Letter from Publisher

023 이진창 발행인 인사말

Cover Story

- 024 점주단체 단체협상권 놓고 요동치는 가맹사업법
정무위 기습통과로 여야 대치
필수품목 개선대책 등 규제 강화까지 업계 '한숨'
- 030 외식업계, 외국인 인력고용 문 열리다
업력 5인 미만 7년·5인 이상 5년
4월부터 최대 2명 고용 가능

Special Report

- 032 2023년 한 해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 '다비치안경'
산업통상자원부-한국프랜차이즈협, '2023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개최
- 036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명 중 1명,
'프랜차이즈가 팬데믹 극복에 도움'
- 040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100조 돌파
- 042 공정위,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불공정 경험 점주 전년 대비 감소
- 044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이자부담 경감-상표 공존 동의제-외식업계의
외국인력 고용 개선 등
- 046 주류 세금 인하에도 식당 술값 인하 어려운 속사정

Hot Issue

- 048 대법,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노동계 "시대흐름 역행" 반발 VS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유연 판결"
- 050 외식 배달비, 1년새 4% 상승
외국식 7000원 가장 비싸...3000원 32.1%로 가장 많아
- 052 올해의 운세



프랜차이즈 순위를 알면,
성공 창업이 보인다!

창업도

changupdo.com

프랜차이즈 브랜드 누적 조회수 1,100만건
주간 평균 조회수 10만건 돌파!

↓ EVENT

예산이 적어도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사의 합리적인 맞춤 견적으로
최신 트렌드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드립니다.

대표전화 : 02.556.7889

Organ News

- 054 품목확대 등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적용
- 056 BHC·에그드림, 부당 행위로 과징금 부과
- 057 식품제조기계 끼임 사고 예방 안전기준 마련

058 [기고] 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맞이하는 외식업계의 자세

People & Company

- 060 김봉건 다비치안경 대표
- 064 김태훈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장

Brand Highlight

- 066 창업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시작과 성공 (주)하이프랜차이즈
- 067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문회사 애드플래닛
- 068 명륜진사갈비·본죽&비빔밥카페·이디야커피
- 069 쿠우쿠우

Guide Post

- 080 중국 신유통 현장을 가다-②

Association News

- 084 한국프랜차이즈협회, 3.4 개강 '제13기 KFCEO 교육과정' 원우 모집
- 085 박효순 수석부회장, 연세대 FCEO 제11대 총동문회장 취임
- 086 농식품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방문
물가안정, 인력난 해소 등 논의
- 087 지회소식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090 신규회원/교육일정
- 096 구독안내

Column

- 070 컨설팅 - 이경희
가맹점에도 필요한 스마트상점 기술
열린경영으로 정보제공 가맹본부 되길
- 072 마케팅 - 장재남
2024년 프랜차이즈산업의 전망
- 074 법률 - 안철현
영장기각과 영장발부 사이
- 076 세무 - 최인용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세금 없이 하세요
- 078 노무 - 이금구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2024년 신년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현식

존경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 중인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소폭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업계 또한 내수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과 물가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시스템 개선으로 수익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 ▲(K-프랜차이즈) 창업지원 플랫폼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사업 ▲인력난 해소 ▲창업박람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협동로봇 확산 등 업계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박람회 참가를 활성화해 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업종·직종의 조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가 향후 업종 및 직종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초부터 업계의 철저한 대비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업계에서는 재빠르게 제도를 맞이할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용조정을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고, 임금 체불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미리 가입하고 근로계약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차가 쉽지 않고 여러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나, 인건비와 근로 태도, 구인난 해소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맹점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홍보 및

제도 소개 지원과,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협회도 4월경으로 예상되는 첫 신청기간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숙소 제공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공동 숙소 조성 지원을 건의 중입니다. 건강진단, 교육실시, 고용보험 등에서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신청 절차 요건 간소화 및 본부 대행 허용, 업종별 협단체 상담센터 지원 및 취업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점사업은 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던 해외진출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업계가 과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추진 중입니다. 업계에서 이미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등으로 진출국가를 넓혀 세계 시장에서 자랑스러운 K-프랜차이즈의 입지를 한껏 높여 주는 만큼, 중소기업본부에까지 낙수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진출이 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한 해라고 합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승천(昇天)하듯, 모든 분들이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번창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정 현 식 드림

Franchise World 프랜차이즈월드 Vol.65
The Magazine For You

PUBLISHER

회장	정현식 Chung, Hyun Sik
발행·편집인	이진창 Lee, Jin Chang
협회/사무총장	박호진 Park, Ho Jin

EDITORIAL DEPT

편집국장	이 호 Lee, Ho
취재국장	조인영 Cho, In Young
이사	김태규 Kim, Tae kyu
	조기석 Cho, Gi Suk
특임 기자	김동하 Kim, Dong Ha
	노승욱 No, Seung Wook
	박서진 Park, Seo Jin
기자	김은영 Kim, Eun Young
	신용희 Shin, Yong hee

DESIGN

실장	임재승 Lim, Jae Seung
----	----------------------

PHOTO

사진기자	이명철 Lee, Myung Cheol
------	------------------------

CORRESPONDENT

대구·경북 기자	정다미 Jung, Da Mee
부산·울산·경남 기자	정미진 Jung, Mi Jin
강원 기자	손준기 Son, Jun Ki
광주·전남 기자	박내연 Park, Nae Yeon
대전·충남 기자	박경원 Park, Kyung Won
전북 기자	고재경 Ko, Jae Kyung
충북 기자	박성희 Park, Sung Hee

CONTRIBUTORS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이경희 Lee, Gyeong Hee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장재남 Jang, Je Nam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안철현 Ahn, Cheol Hyun
법무법인 해 파트너 변호사	조은혜 Cho, Eun Hye
세무회계 성우 대표	서성우 Seo, Sung Woo
노무법인 C&B 대표	이금구 Lee, Keum Goo

CONSULTATIVE COMMITTEE

편집주간	김영인 Kim, Young In
편집위원장	정종인 Cheong, Chong In
수석편집위원	김용순 Kim, Yong Soon

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 윤리강령·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획/제작 (주)KFN 애드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9 706호(여의도동, 두일빌딩)
 대표메일 kfn1991@naver.com
 광고문의 02-556-7889
 보도자료 Webhard (ID : kfn1991, PW : 1991)
 취재·구독문의 02-556-7889 (구독료 15,000원/권)
 인쇄 (주)근아인쇄
 판매대행 (주)성운도서
 등록번호 영등포, 마00070



본립도생(本立道生)과 목불견첩(目不見睫)



발행인
이진창

권리망의(見利忘義), 악자성시(惡者盛時). 2023년을 돌아 본 사자성어다. 권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뜻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회 정의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의미이다. 이익이 눈에 보여 의로움을 잊어버린 우리의 정치권 전반을 두고 평한 것이다. 전국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악자성시(惡者盛時)’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올해의 사자성어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全盛時代)였다는 뜻이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나쁜 놈들이 유난히 설쳐댄 한해라는 얘기가.

물론 2023년 정치권을 포함해 사회를 풍자한 면에서는 공감이가 간다. 그런데 기업가들의 생각은 어떨까가 궁금하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재계에서 선정한 사자성어를 들여다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 줄을 고쳐 매다)’이란 사자성어를 내걸었다.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자”는 주문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심상사성(心想事成)을 이야기했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운외창천(雲外蒼天)’을 선정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의미다. 고물가, 고금리 등

려운 난관을 벗어나면 다시 도약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기대감이다.

또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삼성증권은 선정했다. 안정적인 시장 상황에도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응답자의 33.2%가 선택했다.

이들 사자성어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성장과 희망, 미래, 글로벌 등을 말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말한 이택상주(麗澤相注)다. 두 개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빗대어 이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도 홀로 생존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싶다. 가맹점주와 소비자, 협력업체 등과의 상생은 필수다.

여기서 리더의 자기마음 인식이 필요하다. 큰 성과를 내며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을 지속시켜가는 리더들은 ‘자기인식 역량’을 지니고 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진짜 리더십이다. 필자는 2024년 사자성어로 본립도생(本立道生)과 목불견첩(目不見睫)을 꼽고 싶다.

본립도생은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다. 목불견첩은 남의 허물은 볼 줄 알면서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함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푸른 용의 해 갑진년에 모두가 비상하는 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KFN**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발방지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청룡의 해’ 점주단체 단체협상권 놓고 요동치는 가맹사업법

정무위 기습통과로 여야 대치...필수품목 개선대책 등 규제 강화까지 업계 ‘한숨’

WRITE | 이 호국장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희망찬 갑진년 새 아침을 맞아 저마다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및 하위 법규 시행이 다수 예고되면서 업계가 크게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연말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하 단체협상권 법)이 정무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돼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단체협상권 법에 대한 논의는 지나친 부작용이 우려돼 오랜 기간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야당이 갑자기 소상공인 보호 강화의 핵심 법안으로 지목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남은 회기 동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요청에 불응시 처벌” 실현되나

단체협상권 법은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회기부터 유사한 개정안들이 십 수 차례 발의돼 왔으나, 하나 같이 보완 필요성이 높아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발해 퇴장한 사이 단체협상권 법을 위원장안으로 직권 상정해 기습통과시켰다. 곧이어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문이 나오고 2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위에서 논의가 불발된 지 일주일 만, 심지어 여야 2+2 협의체에서 야당이 10대 중점논의 법안으로 제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협의 테이블에 올리고 갑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이중적 행태에, 여당은 위원장이 당 소속인 법사위에 상정 금지령을 내리며 크게 반발 중이다.

“협의요청 제약 없고 복수 협의로 혼란 초래”

업계는 단체협상권 법이 통과될 경우 규정 미비로 부작

용과 악용 소지가 너무 높고, 불필요한 분쟁이 과도하게 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단체협상권 법은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회기부터 유사한 개정안들이 십 수 차례 발의돼 왔으나, 하나 같이 보완 필요성이 높아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 가맹사업법에는 이미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가맹점주단체는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만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협의 사실의 인정 권한은 가맹점주단체가 쥐게 된다. 이 경우 협의는 사실상의 합의로 변질되고, 가맹본부는 오히려 점주단체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에 놓여 가맹본부의 지도와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의 근간까



2020년 11월 4일 권명호 의원실이 주최한 가맹사업법 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김진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 흔들리게 된다. 점주단체가 개인 또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협의요청권을 무기로 삼아 악용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문제의 핵심은 협의요청에 제약이 거의 없고, 협의 창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어떠한 점주단체라도 언제든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위원장안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주제와 횡수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제재 종류도 시정조치로 제한했다. 하지만 주제·횡수 제한은 단일 단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가맹본부는 단체 수만큼 동일 주제 협의를 반복해야 한다.

급박한 경우 협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여러 점주단체들과 협의하느라 연말연시, 입학 시즌, 기념일 등 신제품과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을 송두리째 날리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제재 수준을 일단 시정조치로 제한했다고 하지만, 일단 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상향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만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협의 사실의 인정 권한은 가맹점주 단체가 쥐게 된다. 이 경우 협의는 사실상의 합의로 변질되고, 가맹본부는 오히려 점주단체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에 놓여 가맹본부의 지도와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된다. 점주단체가 개인 또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협의요청권을 무기로 삼아 악용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노조보다 강력한 단체협상권 갖게될 것” 우려
협의 내용을 타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다. 가맹본부는 구성원이 공개되지도 않는 여러 단체들의 다른 주장을 각자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업계는 소속 단체별로 거래조건이 달라지면 가맹본부의 일관된 지도·관리가 크게 어려워지고 통일성이 저해돼 브랜드 성장이 퇴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표1. 가맹점주단체 단체협상권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위원장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횡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노조법에 조차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와 절차가 규정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지를 오랜 기간 촉구해 오고 있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노조 간, 또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반목과 갈등, 반복적인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소속 단체에 따른 상이한 근로조건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협상권 법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협의 관련이 아닌 등록 취소 관련 조항이 있으나,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됐을 때에만 해당될 뿐이며 이마저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가까운 사업자단체가 오히려 노조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악순환 고리 막아야”...1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주목
일단 단체협상권 법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12월 임시국회 종료 시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

지 못했다. 그러나 곧바로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 만큼 여전히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여야 간에 쟁점법안들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단체협상권 법을 넘겨 주고 다른 법안을 받아오는 일종의 거래가 이뤄질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단체가 협의요청에 최소한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경쟁하게 되면, 세를 불리기 위해 과시적으로 강경하게 협의를 주도하고 타 단체 또는 정치권과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가맹점주단체 간의 갈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돼 브랜드와 점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본부의 본연의 역할은 가맹점을 지도·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여러 점주단체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면 더 이상 통일성 유지와 서비스 품질 제고가 불가능해진다. 브랜드 퇴보는 다시 가맹점주 매출에 악영향을 끼쳐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협회는 남은 회기 동안 업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법안의 부당성

표2. 필수품목 개선대책 개정 가맹사업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을 호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필수품목 개선대책 법 통과...7.2부터 계약서에 필수 품목 정보 기재

한편, 지난해 하반기 가맹업계를 뒤흔든 당정 필수품목 개선대책은 단계별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재적 217명 중 21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시행일이 올해 7월 2일로 확정됐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가맹계약에는 모든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가맹계약은 시행일 이후 6개월 내, 즉 2025년 1월 1일까지 모두 수정돼야 한다.

업체에서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공정위는 추후 산정방식의 예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나, 아직 공급가 산정시 고려하는 항목을 기재하라는 구두 방침 외에는 밝혀진 게 없다. 업체는 제시

업체에서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공정위는 추후 산정방식의 예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나, 아직 공급가 산정시 고려하는 항목을 기재하라는 구두 방침 외에는 밝혀진 게 없다. 업체는 제시



지난해 12월 14일 단체협상권 법안이 기습통과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 정무위원회)



지난해 10월 5일 개막한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노조법에조차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와 절차가 규정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지를 오랜 기간 촉구해 오고 있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노조 간, 또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반복과 갈등, 반복적인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소속 단체에 따른 상이한 근로조건 등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K-프랜차이즈 활성화 시기...신중한 검토 당부”

한편 필수품목 개선대책 중 하나인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성실 협의 의무’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5일자로 입법예고를 마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역시 필수품목 추가, 공급가격 인상·유지 때마다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용어의 모호함 등이 업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필수품목 대책 외에도 지난해 가맹지사(가맹지역본부)에도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어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모바일상품권 취급 여부를 광고·판촉 사전동의의 대상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제정돼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방식에 따라 주요 품목의 매입단가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어 심각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요건과 절차를 하위 법규에 위임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경우, 공정위가 제시할 산정방식의 예시를 따른다 해도, 법원의 법 해석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이어지는 규제 러쉬에 업계는 한숨이 가득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경영애로의 주요 원인은 가맹본부의 횡포가 아니라 경기가 어렵고 원부자재 가격과 비용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인데, 얼마 전까지 착한 프랜차이즈로 치켜세우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 모든 화살을 가맹본부에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업계가 K-프랜차이즈로서 도약 중인 중차대한 시점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FN**



외식업계, 외국인 인력고용 문 열리다

업력 5인 미만 7년·5인 이상 5년...4월부터 최대 2명 고용 가능

WRITE | 이 호국장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소상공인들의 경

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식업체에서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단순 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은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2. 주방보조원은 한국어 능력과 음식점 업무 관련 지식이 충분하며, 식당 서비스에 적합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3. 주방보조원은 정부가 정한 최대 근속시간(8시간)과 최대 근무일수(주말 포함) 등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주방보조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8시간당 1만 2000원)과 최대 근속시간(8시간) 등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점업 중 비중은 58.5%로 가장 비중이 크고,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의 수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7개 특별·광역시 내 74곳과 7개 도내 음식점 수 상위 3곳씩 21곳, 세종시 1곳, 제주시 1곳, 강원도 3곳 등의 한식업체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한식업...업력은 5년 이상

정부는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약 80만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 중 비중은 58.5%로 가장 비중이 크고,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의 수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7개 특별·광역시 내 74곳과 7개 도내 음식점 수 상위 3곳씩 21곳, 세종시 1곳, 제주시 1곳, 강원도 3곳 등의 한식업체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과 폐업이 잦은 음식점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은 주방 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했다. 아울러 전일제(주 40시간 근무)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확한 신청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송출국 지정 및 인력선발/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2024년 4월경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외식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은 H-2비자를 가진 중국교포(조선족)를 비롯해서 재외 동포만 취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5인 미만 식당에서 1만3000명, 5인 이상 식당에서 4400명 등 100개 지역식당 1만5000곳에서 1만7000명 가량이 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체 평균 3.4%를 웃돌았다. 세부직종은 식당 서비스원(6.1%), 음식점 및 주점업(5.3%), 조리사(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식업 중사자의 26.1%가 직원 관리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 현상 지속'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외국인력의 한식당 주방 보조 도입과 관련해서는 100개 지역(서울 25개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98곳, 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적으로만 허용된다. 경기도는 수원과 성남, 고양시가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업을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꾸러어야 고용할 수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까지, 5인 이상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 대상이고 대형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 인원도 제한적이라 여전히 인력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부에서는 당장 아쉬워하긴 하지만 향후 대형업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KFN**

“2023년 한 해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는 다비치안경”

산업통상자원부·한국프랜차이즈협, <2023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개최

국무총리표창 컴포즈커피, 아소비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에 38점 표창 수여

WRITE | 신용희 기자



다비치안경이 2023년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다비치안경(☞다비치안경체인·대표 김인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이하 산업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개최한 ‘2023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협회는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올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등 정부표창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등 총 38점의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다비치안경이 차지했다. 안경 프랜차이즈 1위인 다비치안경은 가격에 거품을 뺀 좋은 품질의 제

품으로 안경 시장의 성장과 업계의 선진화를 이끌어 왔다. 또 2005년부터 업계 최초로 자체훈련기관으로 승인받은 다비치안경 사관학교를 통해 안경 전문인력을 배출해 안경 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가맹점과의 상생과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무총리 표창은 컴포즈커피(☞컴포즈커피·대표 김진성)와 아소비(☞아소비교육·대표 박시연)가 수상했다. 컴포즈커피는 2,200여 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과 뛰어난 역량으로 저가커피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국내 5~9세 전문 교육 프랜차이즈 아소비는 인지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대면 교육을 제공하는 2,000여 개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부문> ▲프랭크버거(대표 심우창) ▲에듀플렉스(대표 고승재),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부문> ▲고수의운전면허(대표 정재현) ▲불막열삼(대표 오몽석), <기술혁신 부문> ▲장부대장(대표 강병태), <우수가맹점> ▲박가부대 인천검단사거리역점(대표 장미경),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정용덕(☞세명에프엔에프 대표 등 총 7개 브랜드 및 가맹점이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부문> ▲생활맥주(대표 임상진) ▲피자마루(대표 이영준) 2개 브랜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부문> ▲THE진국(대표 손석우)가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부문> ▲채선당(대표 김익수) ▲카페 불뿔(대표 이승은),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대표 임은성) 등 3개 브랜드가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상은 <기술혁신 부문> ▲GOGOBOX(대표 구구대) ▲브이디로봇(대표 함판식) 등 2개 브랜드가 수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은 <우수 프랜차이즈 부문>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대표 김태경) ▲더벤티(대표 박수암 외 2인) ▲푸라닭(대표 장성식) 등 12개 브랜드와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부문> ▲청담동 말자싸롱(대표 최성수) 등 4개 브랜드, <기술혁신 부문> ▲얌샘김밥(대표 김은광) 등 2개 브랜드, <우수가맹점 부문> ▲프랭크버거 인천작전점(대표 최윤희), <프랜차이즈 산업발전 유공(기업)> ▲전통맛집할매순대국(대표 한근임) 등 총 20점이 수여됐다.

한편 협회는 시상식 후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는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KFN**

2023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수상 리스트

◆ 대통령 표창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우수 프랜차이즈	(☞)다비치안경체인	다비치안경	김인규

◆ 국무총리 표창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우수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	컴포즈커피	김진성
2	우수 프랜차이즈	(☞)아소비교육	아소비	박시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우수 프랜차이즈	(☞)프랭크에프앤비	프랭크버거	심우창
2	우수 프랜차이즈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에듀플렉스	고승재
3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제이에프파트너스	고수의운전면허	정재현
4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꿈을실현하는사람들	불막열삼	오몽석
5	기술혁신	(☞)푸드노트서비스	장부대장	강병태
6	우수가맹점 (인천검단사거리역점)	박가부대	-	장미경
7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세명에프엔에프	-	정용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우수 프랜차이즈	(☞)데일리버어	생활맥주	임상진
2	우수 프랜차이즈	(☞)푸드존	피자마루	이영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우수 프랜차이즈	(☞)섬김과나눔	THE진국	손석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우수 프랜차이즈	(☞)채선당	채선당	김익수
2	우수 프랜차이즈	(☞)카페불뿔	카페불뿔	이승은
3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	커피에반하다	임은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기술혁신	에이앤에이치(☞)	GOGOBOX	구구대
2	기술혁신	브이디컴퍼니(☞)	브이디로봇	함판식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

No.	부문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1	우수 프랜차이즈	(☞)더세프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김태경
2	우수 프랜차이즈	(☞)에스앤씨세인	더벤티	박수암 강삼남 최준경
3	우수 프랜차이즈	(☞)아이더스코리아	푸라닭	장성식
4	우수 프랜차이즈	(☞)지호	지호한방삼계탕	이영채
5	우수 프랜차이즈	(☞)티에스푸드	땅스부대찌개	정경문
6	우수 프랜차이즈	(☞)리마커블교육	링키영어	우상현
7	우수 프랜차이즈	(☞)이노티안경체인	이노티	채경영
8	우수 프랜차이즈	(☞)선진팻	팻마트	이권형
9	우수 프랜차이즈	(☞)심플맨	백채김치찌개	박병진 양형석
10	우수 프랜차이즈	(☞)앤리치	고돼지	명노용
11	우수 프랜차이즈	(☞)에쓰와이프랜차이즈	이백장돈가스	김성윤
12	우수 프랜차이즈	(☞)금탑에프앤비	청담동말자싸롱	최성수
13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청춘에프앤비	청춘달고치	박진원
14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	리맥스코리아	신희성
15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육성푸드(주)	팔각도	조성욱
16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하삼동	하삼동커피	박성준 한지혜
17	기술혁신	(☞)얌샘	얌샘김밥	김은광
18	기술혁신	(☞)에스엠에이컴퍼니	101번지남산돈까스	조윤희
19	우수가맹점	프랭크버거(인천작전점)	-	최윤희
20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기업)	(☞)한결엔터프라이즈	전통맛집할매순대국	한근임

2023년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



다비치안경이 2023년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 - 컴포즈커피



국무총리 표창 - 아소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프랭크버거, 에듀플러스, 고수의운전면허, 불막열상, 장부대장, 박가부대 인천경단사거리역점, (주)세명에프엔에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 생활맥주(왼쪽), 피자마루(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THE진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 채선당, 카페봄봄, 커피에반하다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송년회 정현식 협회장 인사말



오승철 산업부 성장기반실장 축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 GOGOBOX, 브이디로봇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 - 링키영어, 텐퍼스트스페셜티커피, 고돼지, 더벤티, 땅스부대찌개, 청담동말차싸롱, 이백장돈가스, 펫마트, 지호한방상계탕, 푸라담, 백채김치찌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 - 팔각도, 암샘김밥, 리맥스코리아, 101번지남산돈가스, 전통맛집할매순대국, 프랭크버거 인천차전점, 하심동커피, 청춘닭꼬치



송년회 축하공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명 中 1명, '프랜차이즈가 팬데믹 극복에 도움'

대한상공회의소-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2023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결과 발표

WRITE | 김은영 기자



지난해 5월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을 통해 협회 주요 회원사들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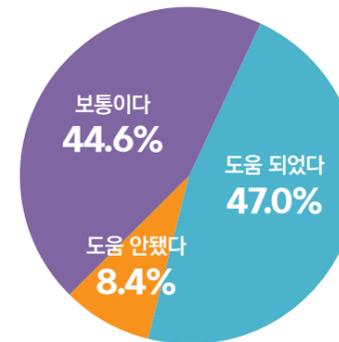
- 프랜차이즈 실태조사(가맹본부 800개, 가맹점 1,000개) 조사 ... 가맹점주 79% '재계약 의향 있다'
- 가맹점당 평균 3.8명 고용창출 효과 ... 투자비 회수에는 '평균 3.6년' 걸려
- 가맹점주 10명 중 8명(80%)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 점주·가족근무 확대(44.3%) 등으로 대응
- 가맹본부에 ... 원부자재 가격인하(26.6%), 광고·판촉(24.8%), 신상품 개발(17.6%) 등 기대



지난해 10월 5-7일 제55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입장 등록 대기 중인 관람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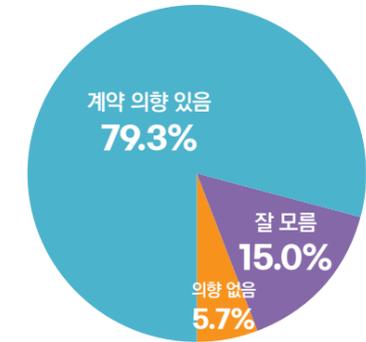
프랜차이즈 가맹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5일 가맹본부 800사 및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극복에 대한 프랜차이즈 도움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2명 중 1명(47%)은 '개인 자영업자가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어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안됐다'는 의견은 8.4%에 그쳤다. <보통 44.6%>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가맹본부가 상품 개발, 광고·판촉, 운영관리를 해주는 데다 코로나 기간에도 외부 플랫폼업과 키오스크 도입 등 자신이 부족한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맹점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의향 여부〉

이를 반영하듯 점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만족도는 매출수준(58.8점)과 점주근로조건(58.8점) 만족도보다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점포운용 용이성(63.8점), 영업지역 보호(63.4점), 가맹본부 마케팅(61.4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계약 기간 종료시 재계약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가맹점주 10명 중 8명(79.3%)은 '재계약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잘 모름 15.0%, 의향없음 5.7%

◇가맹점당 3.8명 고용창출 효과 ... 투자비 회수에 평균 3.6년 걸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점주를 포함하여 가맹점당 평균 3.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3.6명, 서비스업 3.4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5-7일 제55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해외진출 유망 국가 설명회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창업에는 평균 1억5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억8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식업(150백만원), 도소매업(149백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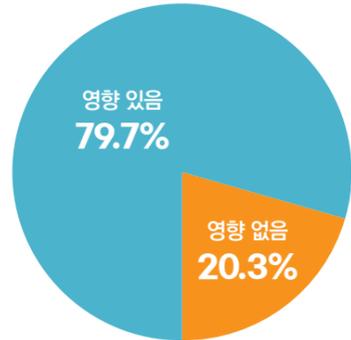
※세부업종별 창업비(백만원): 제빵 263, 안경 223, 피자/버거 162, 한식 156, 커피 142, 이미용 121, 분식 119, 편의점 118, 치킨 104 등 순

투자비용 회수까지는 평균 3.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는 외식업(3.2년), 서비스업(3.6년), 도소매업(4.8년) 순으로 조사됐고, 세부업종별로는 분식(2.5년), 치킨(2.6년), 편의점(3.0년), 이미용(3.0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세부업종별 투자비용 회수기간(년): 분식 2.5, 치킨 2.6, 편의점 3.0, 이미용 3.0, 커피 3.2, 한식 3.3, 피자/버거 3.7, 안경 4.2, 제빵 4.3

◇가맹점 10곳 중 8곳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커' ... 점주와 가족 근무확대(44.3%) 등으로 대응

가맹점 10곳 중 8곳(79.7%)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영향 없다 20.3%> 최저임금 인상에 점주와 가족의 근무 확대(44.3%), 종업원 근무시간 축소(25.3%), 인건비 외 비용절감(23.9%), 종업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경영상 영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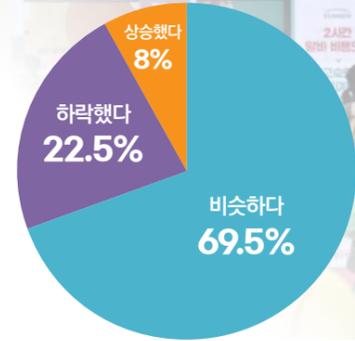
원 수 감축(19.3%)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들은 창업시 애로사항으로 상권 분석(53.9%), 사업성 분석(42.1%), 가맹브랜드 선택(41.3%), 사업아이템 선정(41.2%), 초기투자금 조달(40.4%) 등을 차례로 꼽았고, 매장 운영 애로사항으로는 점포 임대료(35.1%), 인건비(25.2%), 원재료비(26.1%), 경쟁심화(19.9%) 등을 들었다. ※복수응답

◇가맹본부에 원부자재 가격인하(26.6%), 광고/판촉(24.8%), 신상품 개발(17.6%) 등 기대



지난해 10월 5-7일 제55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1년 전과 비교한 매출액 증감 여부

가맹점주들은 1년 전과 비교한 매출액 증감 여부에 대해서는 1년 전과 비슷하다(69.5%), 하락했다(22.5%)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승했다 8.0%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하락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대해 원부자재 가격인하(26.6%)와 더불어 적극적인 광고·판촉(24.8%) 및 좋은 신상품 개발(17.6%) 등을 통해 매출을 성장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매장운영 효율화 신기술 지원(13.5%)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1.8%인데 반해 <불만 2.7%>, '가격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2.2%로 <불만 9.9%> 나타나, 가맹본부의 추가적인 가격 개선 노력을 기대했다.

◇가맹본부 평균 77개 가맹점 운영 ... 가맹본부의 53.0% 로열티제도 도입

한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맹본부는 평균 77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평균 18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104개), 외식업(52개) 순이었다.

또 가맹본부의 2곳 중 1곳(53.0%)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답해 <받지 않음 47.0%>, 2021년(41.9%)에 비해 도입 비중이 11.1%p 상승해 프랜차이즈산업의 로열티 제도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이 잘 될 때 가맹본부 이익도 증가하는 런닝로열티 제도는 가맹점수가 많아질수록 도입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맹점수 10개미만일 때 런닝로열티 비중 16.2%, 10~99개 27.2%, 100개 이상 37.9%> 가맹점수가 적고 영세한 가맹본부일수록 런닝로열티 도입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일반 자영업에 비해 위기 극복에 뛰어난 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로열티제도가 정착되고, 가맹본부의 매출 제고 및 수익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77]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23. 9.21 ~ 11.30
- 조사대상 :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800개사, 가맹점 1,000개
 - 가맹본부 800개(외식업 527, 서비스업 200, 도소매업 73)
 - 가맹점 1,000개(외식업 499, 서비스업 284, 도소매업 217)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조사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100조 돌파

전국 가맹점 수 28만6000개 '전년 대비 9.7% 증가'

WRITE | 김은영 기자



2022년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8만600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은 100조1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보다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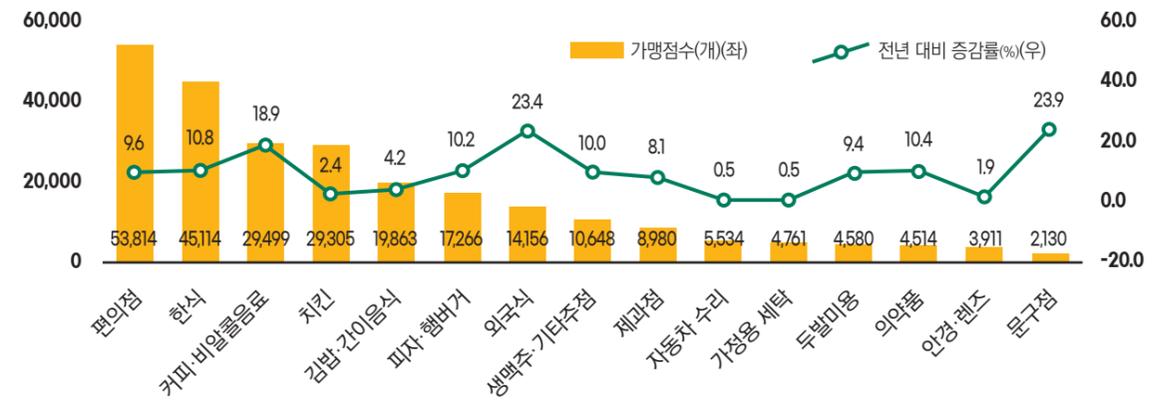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가맹점은 28만6000개다. 전년 대비 9.7%(2만5000개) 증가했다.

가맹점 수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5만4000개), 한식(4만5000개), 커피·비알콜음료(2만9000개)다. 전체의 45.0%를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업종에 구분없이 모든 업종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중 증감률이 높은 업종은 문구점(23.9%), 외국식(23.4%), 커피·비알콜음료(18.9%), 한식(10.8%), 의약품(10.4%), 피자·햄버거(10.2%), 생맥주·기타주점(10.0%) 순이었다.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100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84조693억원에 비해 18.2%(15조4000억원) 증가했다. 매출액 상위 3대 업종



〈업종별 가맹점수 및 증감률〉



은 편의점(26조9000억원), 한식(14조5000억원), 치킨전문점(7조6000억원) 등이다. 이들 3대 업종은 전체 매출액의 48.9%를 차지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506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억2540만원에 비해 2520만원(7.7%) 증가했다. 매출액 상위업종은 의약품(12억6770만원), 자동차수리(6억4220만원), 편의점(4억995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위 업종은 가정용세탁(8770만원), 커피·비알콜음료(1억9800만원), 생맥주·기타주점(2억2590만원) 등이다.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문구점(-7.5%)은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수는 94만2000명이었다. 전년 83만4000명보다 12.9%(10만8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수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20만1000명), 한식(14만3000명), 커피·비알콜음료(11만7000명)로 조사됐다.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아울러 커피·비알콜음료(28.2%), 생맥주·기타주점(27.1%), 외국식(24.0%)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증가했다. 다만 가정용 세탁(-3.3%)은 감소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빨대 또는 생분해성 빨대, 드링크 리드 등 각종 대체품 개발·도입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 또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종이컵 또한 머그컵으로 대체시 피크타임 때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 확보 부담,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도 매우 우려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59.5%(56만1000명)로 남성 40.5%(38만1000명)보다 높았다. 여성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과점, 두발미용, 커피·비알콜음료, 의약품 등이었다. 반면 자동차수리, 안경·렌즈 업종은 남성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경기도가 7만6000개 가맹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4만9000개), 부산(1만8000개), 인천(1만6000개) 순이었다. 수도권이 14만1000개로 전체 28만6000여개의 49.5%를 차지했다.

인구 만명당 가맹점 수는 제주(68.3개)가 가장 많았고, 강원(63.4개), 울산(59.6개)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51.2개), 서울(51.5개) 등은 적었다. 지역별 종사자 수는 경기도가 2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8만명), 부산(6만1000명), 인천(5만8000명), 경남(5만5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매출액은 경기도가 27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20조1000억원), 인천(6조원), 부산(5조9000억원), 경남(5조7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17]

공정위,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발표 불공정 경험 점주 전년 대비 감소

온라인몰 거래관행 개선...광고·판촉 비용 전가, 점포환경개선비용 전가 개선요구 多

WRITE | 김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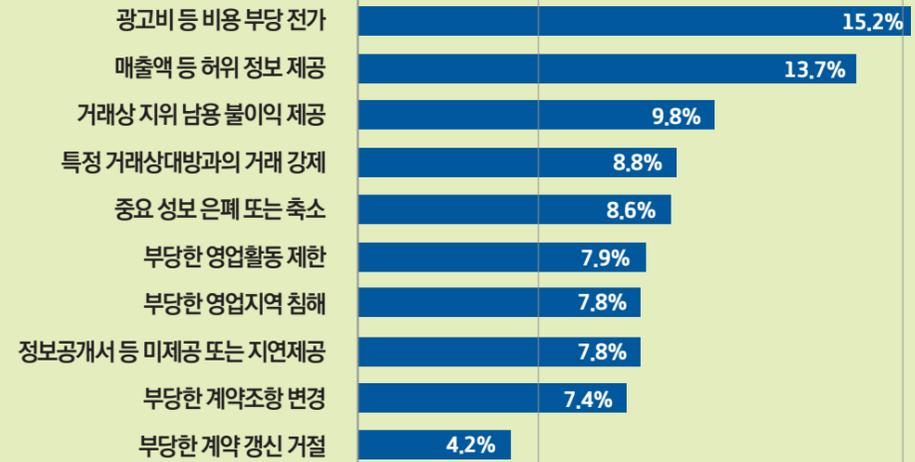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3년 12월 28일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전년(84.7%) 대비 7.8%p 하락하였고,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3.1%로 전년(84.6%) 대비 1.5%p 하락하였다. 다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 대비 7.5%p 감소하였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부진 등 3중고로 인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

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이 낮아진 것은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이 그나마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된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로 조사되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35.0%, 34.3%로 나타났다. 특히 기권한 가맹점주를 동의로 간주(10.9%, 13.2%)하거나, 비동의한 가맹점



사례1. 편의점 ((주)비지에프리테일 : 씨유(CU))

- 추천점포 인센티브 제도: 고객이 온라인몰(App)에서 상품 구매 시 등록된 추천점포에 대하여 수익액의 65%(비용 차감 후)를 인센티브 지급

사례2. 커피 ((주)앤하우스: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립된 적립금으로 커피/디저트 등 교환권을 구매하여 매장에서 사용 가능

사례3. 기타도소매 ((주)초록마을: 초록마을)

- 온라인 판매분을 가맹점에서 배달하고 가맹점이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의 O2O서비스 운영

주에 불이익을 준다(14.3%, 12.5%)는 등 사전 동의율 산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판촉비용의 부당전가를 막기 위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22년 1월)하였으나, 아직 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 상품권 등 광고·판촉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광고·판촉 관련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나 시장감시 측면에서나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이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9.5%로 조사되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필수품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였고(12.8. 법개정 완료), 필수품목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12.4.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다. 이러한 정책이 완료되면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이 투명하게 기재되고 비

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지정, 품질저하 등 점주들이 겪는 피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비율은 16.0%로 전년(22.5%) 대비 6.5%p 감소하여 온라인몰 판매 관련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1,710건으로 전년(1,244건)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 관련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 온라인몰 매출비용, 온·오프라인 전용 상품개수 등을 등록하게 한 것(21년 11월)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맹점주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동시에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점포환경개선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나아가 시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KFTC**

[2024년 달라지는 것들]

WRITE | 김은영 기자



푸 른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이 밝았습니다. 2023년 프랜차이즈 업계를 포함해 자영업 시장은 고금리, 고환율, 원부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맞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갑진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그전에 앞서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해가 바뀌면서 변화되는 제도들이 있죠.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 달라지는 것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100억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50%에서 50~80%로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

원내용은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 준다. 시행일은 2024년 1월부터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가 신설, 지원된다.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준다. 현재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520억원 규모의 재원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올해 상반기 중 별도 공지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1일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시행일: 2024년 4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법률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해 사전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시 손해액의 5배(현행 3배 이내)까지 배상해야 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올해 5월 1일부터 상표공존 동의제가 시행된다.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 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외식업이 신설됐다. 내국인 취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업종은 한식음식점업이다. 지역은 7개 특별광역시 내

전체와 7개 광역도 내 음식점 상위 3곳 등 주요 100개다.

업력은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5년 이상 사업체와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7년 이상 사업체다. 직종은 주방보조원이다. 시행은 올해 4월부터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 본격화

펫푸드 등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둘째, 펫푸드 등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 윈-웹페어블리를 조성한다. 셋째, 수출전략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관리기준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사업공모는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원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 세계지원을 지속 지원해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K71]

주류 세금 인하에도 식당 술값 인하 어려운 속사정

1월 1일부터 출고가 10% 이상 인하

현장에서는 비용부담 상승으로 인하 여력 없어

WRITE | 김은영 기자



새해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졌다. 공장출고가가 10% 이상 낮아지게 되지만, 유통매장 가격과 식당·주점에서의 판매가는 여러 여건을 종합해 봤을 때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준판매비율'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반면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역차별이 있었다. 이에 세정당국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가 낮아졌다. 세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갔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작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비용 부담 전체적 상승...가격 인하 쉽지 않아

다만, 업계에서는 주세 하락에 따른 시중 음식점 등의 소주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소주 등 술값 인상·인하 여부는 업주 재량이다. 주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술값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체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주나 맥주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름값이나 생활 전반에 걸친 '체감 물가상승률'을 주관적으로 반영해 업주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게 주류업계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측의 주세 하락 방침과 상관없이 술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출고가 하락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업주 재량에 달려있다.

현행 소주 출고가는 적게는 50원, 많게는 100원 정도가 오르거나 떨어진다. 그러나 음식점 등 일반 술집에서 매겨지는 소비자가격은 최소 1천원에서 많게는 3천~4천원까지 오른다.

소주 원가 구조를 들여다 보면 소주 제조 가격은 소주병·상자·포장 등을 포함해 500~600원 정도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주세와 교육세 등이 붙어 공장 출고 가격이 만들어지고, 10%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져 일선 음식점 등으로 유통된다. 다만, 주류 도매 업체에서 소주 가격에 엮는 마진을 약 20%를 감안하면 최종 음식점에 공급되는 소주 가격은 1천400원~1천600원대 안팎에서 형성된다.

실제, 음식점 등 식당가에서 소비자가 사 마시는 소줏값은 4천~5천원에서 6천~7천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술을 마시는 장소 제공과 여러 밑반찬 및 서비스 등의 명목·전기로·임대료·인건비 등 여러 부대비용이 술값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각종 비용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 등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소줏값을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며, 전체적인 물가와 업장 운영에 관한 사안을 고려해 술값 인상 및 인하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KFN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노동계 “시대흐름 역행” 반발 VS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유연 판결”

WRITE | 김은영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12월 25일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근무하다 2016년 11월 숨진 직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에 걸쳐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34회, 2015년 43회, 2016년 32회 등 총 109회(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더라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판결로 사법부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월 26일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 현장에 ‘크런치 모드’ 등 노동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려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 최고심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25일 논평을 통해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 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행 근로시간 법 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쉬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FN**

외식 배달비, 1년새 4% 상승

외국식 7000원 가장 비싸...3000원 32.1%로 가장 많아

WRITE | 김은영 기자



외식 배달비가 2023년 12월 기준 1년 전보다 4.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배달비는 2000~3000원대가 전체 업종의 7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월 29일 밝힌 외식배달지수 조사에 따르면 배달비는 무료부터 최대 7000원까지 분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은 3000원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했다. 중식 등 일부 대상처는 자체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2000원대부터 3000원대가 7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000원대는 47.3%로 나타났다. 업종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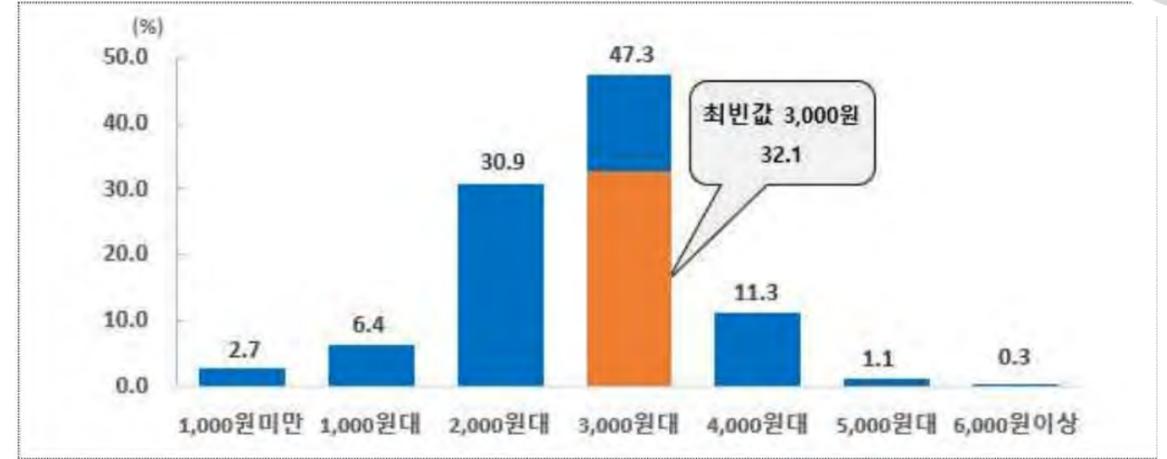
달비는 외국식이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식 6200원, 간이음식 5000원, 커피 및 음료 4500원 순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3000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식과 외국식은 전 구간에 분포하며 간이음식은 1000원대에서 5000원대, 커피 및 음료는 1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기간(22.11.~23.12월) 동안 소비자물가 외식대상처의 판매유형별 평균 매출 비중은 배달이 24.5%, 매장 75.5%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배달매출 비중에서 간이음식은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식 22.6%, 한식 11.6%, 커피 및 음료 7.0%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매출 비중〉

업종 판매유형	(단위: %)				
	전체	한식	외국식 (자장면 생선초밥 등)	간이음식 (치킨 햄버거 피자 김밥 등)	커피 및 음료
배달 비중	24.5	11.6	22.6	48.8	7.0
매장 비중	75.5	88.4	77.4	51.2	9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외식 배달비 분포〉



외식배달비 소비지출액의 업종별 비중은 간이음식이 48.3%로 가장 높았고, 한식 23.8%, 외국식 17.7%, 커피 및 음료 10.2%로 나타났다. 간이음식은 치킨 21.8%, 햄버거·피자 18.6%, 김밥 등 7.9% 순이었다.

2023. 11월 외식배달비지수 등락률은 전국은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에서는 3.9% 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전월 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다.

2023. 12월 외식배달비지수 등락률은 전국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3%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6% 올랐고, 비수도권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9% 각각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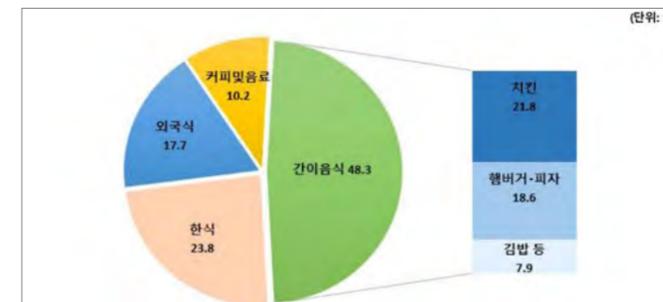
이로 인해 음식배달 거래액도 증가 추세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거래동향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조16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배달앱 이용자 수도 연말 특수로 반등했다. 1월 빅데이터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12월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3097만3212명으로 전월 대비 5.8%(168만6612명) 늘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는 이들 3사 모두의 이용객이 늘었으며 전월 동기 대비 증가율은 쿠팡이츠 1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2.4% 증가했다.

지난달 배달앱 이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연말 특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커지면서 배달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동기(3069만315명)와 비교해 28만2897명 증가한 수준이다. **KFN**

〈업종별 비중〉





올해의 운세

2024년

푸른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우주 공간의 첫 시작인 천간(天干) 갑목(甲木)의 기운으로 하늘로 빠르게 뻗어 오르며 성장하는 큰 나무이며, 시간을 주재하는 12지지(地支)인 진토(辰土)은 비옥한 대지로 해석합니다.

2024년은 혼돈과 격랑 속 백척간두의 심정으로 호시우보(虎視牛步) “매서운 호랑이 눈으로 침착한 소걸음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한해”입니다. 갑목은 성장의 동력을 주는 우주의 에너지이니 당연히 흥살이든 길운이든,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기 뒤에 오는 기회를 잘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반기 국운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충선 이후 가을부터 기회가 옵니다. 반도체, 배터리, 국방분야 K팝 로봇 바이오 분야에서 수출에 힘을 보태고 위기를 넘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동산은 고금리의 여파가 올 연말까지 이어져 급격한 상승은 어렵고 거래가 힘듭니다. 서민과 자영업의 경기는 여러 방면에서 회복이 더디고 어렵습니다. 새로운 질병의 확산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코로나19가 변이와 신종 질병이 발생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지구촌을 괴롭힙니다.



쥐띠 (1948, 1960, 1972, 1984, 1996, 2008, 2020)

- **사업운:** 2024년에는 사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작은 질병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와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투자나 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띠 (1949, 1961, 1973, 1985, 1997, 2009, 2021)

- **사업운:**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와 피로에 조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생활습관과 휴식을 중시해야 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투자나 거래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 (1950, 1962, 1974, 1986, 1998, 2010)

- **사업운:** 사업 분야에서는 큰 도약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을 수 있습니다.

-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투자나 거래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토끼띠 (1951, 1963, 1975, 1987, 1999, 2011)

- **사업운:** 안정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노력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운이 약합니다. 투자나 거래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띠 (1952, 1964, 1976, 1988, 2000, 2012)

- **사업운:**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반기에 좋은 기회가 오니 준비하세요.

- **건강운:** 신체적인 불편함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운이 약하니 투자나 거래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뱀띠 (1953, 1965, 1977, 1989, 2001, 2013)

- **사업운:**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5월 경에 주의해서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건강운:** 뇌졸중 심혈관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운은 좋습니다. 좋은 거래를 통해 자산증가를 이루는 한 해가 됩니다.



말띠 (1954, 1966, 1978, 1990, 2002, 2014)

- **사업운:** 기복이 심한 한 해입니다. 득과 실이 함께 오는 격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건강운:**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거래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띠 (1955, 1967, 1979, 1991, 2003, 2015)

- **사업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좋은 징조이니 신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 **건강운:** 우울증과 불면증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활동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거래 운이 좋아 원하는 거래가 이뤄집니다.



원숭이띠 (1956, 1968, 1980, 1992, 2004, 2016)

- **사업운:** 안정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활동을 많이 할수록 기회가 많아지는 해입니다.

- **건강운:** 술과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가 약해지는 해이니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운이 약합니다. 신규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닭띠 (1957, 1969, 1981, 1993, 2005, 2017)

- **사업운:** 기회와 위기가 번갈아 옵니다. 변동이 많은 해이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건강운:**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한 해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투자나 거래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리서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1958, 1970, 1982, 1994, 2006, 2018)

- **사업운:** 시간이 갈수록 결과가 향상됩니다. 지치지 않는 인내와 노력의 결실을 맺습니다.

- **건강운:**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 질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운:**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다양한 투자로 돈을 벌게 됩니다.



돼지띠 (1959, 1971, 1983, 1995, 2007, 2019)

- **사업운:** 기회가 많이 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며, 협력과 네트워킹이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 **건강운:** 술과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운:** 상반기는 약하고 하반기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품목확대 등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확대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그 협의 절차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때 기존 점주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기존 계약과 신규갱신 계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아울러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규정으로는 임의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조정절차 종료시 협의회가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WRITE | 김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BHC·에그드랍, 부당 행위로 과징금 부과

가맹계약 해지와 광고·판촉비용 부담 이유...각 3억5000만원·4억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BHC와 에그드랍을 운영 중인 (주)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부당하게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주)비에이치씨는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주)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부당한 강요, 가격구속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억200만원 부과,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10.30.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2020.1.6.부터 2021.4.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12.16. 이후 박탈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는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

게 광고·판촉비용 부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 고발이 결정됐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 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분야인 치킨업계와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WRITE | 김은영 기자

고용노동부

식품제조기계 끼임 사고 예방 안전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산안법 하위법령에 40개 개선과제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올해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지므로 안전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안전규제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7일 SPL, 사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개선 과제인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추가 규제 개선 40개 과제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듣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SPL 등 끼임사고 후속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불가피하게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볼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끼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 작동 중 근로자의 접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작업방식에 맞는 안전조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안전보건기준도 개선됐다.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였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 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WRITE | 신용희 기자

새 해 첫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맞이하는 외식업계의 자세

새해 외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결정됐다. 상반기부터는 일부 한식당 주방에 동남아시아 등 16개국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운영 실태에 따라 업종과 직종 확대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오랜 기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외식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될 만큼, 외식업계도 재빠르게 제도를 맞이할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시범 사업에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빠르게 업종과 직종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 아직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적용대상인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 2명,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 1명)에서는 지금부터 제도를 빠르게 숙지하고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 채용 절차는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등)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고용센터 추천 및 사업주 근로자 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외국인 입국 및 교육 → 근로 시작> 으로 이어진다. 각 단계마다 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하는 절차가 적지 않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청 자격의 경우 당장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있다. 먼저, 첫 단계인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을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 구인 신청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 체불도 없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인력 고용 현황과 급여 지출 현황을 잘 체크하고 관리해 두어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고 근로계약도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근로는 전일제 기준이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최초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 내로 사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또한 입국 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원칙이다.

이밖에 임금은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지급해야 하고, 건강진단과 숙소 제공 의무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현지에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선발된 우수 인력들이기 때문에, 16개 인력 송출국들에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담보하여 우수 인력 공급을 지속하고 국내 근로문화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다만, 외식업계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만큼 일부 항목은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숙소 제공 의무의 경우 소규모 음식점들이 각자 양질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3년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지자체나 민간에서 공동 숙소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외식업계에도 이 같은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 건강진단이나 고용보험 등 비용 측면도 보조가 필요하고,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 외식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신청 절차도 좀 더 간소화하고 전담 도우미 배치나 업종별 협단체에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취업교육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로지만 음식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고유의 문화다. 제조 공장과 달리 음식점업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근로자들도 식자재 사용과 음식의 조리, 음식점의 문화, 소비자 니즈 등 우리나라 고유의 외식소비 문화에 빠르게 녹아들어야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줄어든다. 전문성을 갖춘 외식업 협단체들이 교육에 더 많은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허용에 대해 현재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외식업의 경영 회복과 재도약의 초석을 쌓고, 더 나아가 인구절벽으로 고심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TG**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음식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들어 갑니다.

TOPSONIC NOAS

▶ YouTube 성공의 정석,꾼 / 성공 9단 / 생존의 기술

설거지 때문에 골치 아프신 사장님,
어떤 초음파 세척기 찾으세요?

뛰어난
세척력

짧은
세척 시간

긴 수명

저소음

다양한
세척 기능



압도적인 세척력, 오직 탑소닉만이 특허로 인증합니다.



담양 [정자네 식당] - 21년째 사용

- 국내유일 강력한 24kHz 진동 소자
- 입체형 3D 초음파 발전기
23.5kHz 24kHz 24.5kHz 혼합변조
세계최초특허 제 10-1902545호
- 소음감소 기술 및 진동완충 기능 적용
세계최초특허 제 10-1910183호
- 국내 최고 초음파 분야 기술력을 자랑하는
듀라소닉과 공동특허 획득 및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무상 A/S 10년, 제품 수명 20년, 약속드립니다.

찬물에도 변함없는 강력한 세척력
석쇠, 불판, 독배기, 숯밥냄비 등
까다로운 식기 완벽 해결
수압식 세척기와 겸용 NO!

담갔다가 건지면 끝나는 3분 설거지
각종 기름기, 잔류 농약, 세균 완벽 제거
설거지 직원 필요 NO!

초음파 세척기 구매? 오늘 결정하지 마세요
무료로 5일간 사용 후 결정하세요.

무료사용 / 시연신청 > 방문 상담/시연 > 무료사용(5일) > 구매결정
(불만족시 무료철폐)

부담 없이 렌탈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 사용하시다가 세척력 · A/S 때문에 고민이신 분은 상담을 통해
특별 대우 해드립니다.

“다비치다움이 만드는 맑고 밝은 세상”



 **DAVICH** **다비치안경**
김봉건 대표



포토드링크_신세계 센텀시티점

한국프랜차이즈 산업 태동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린스치킨이 1977년 신세계백화점 안에 1호점을 개점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첫 장을 열었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이후 프랜차이즈는 외식업 중심으로 활발한 확장을 이뤘다. 이 와중에 2000년 초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이가 있다. 안경 프랜차이즈의 선두 주자인 다비치안경의 김인규 회장이다.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그의 아들인 김봉건 대표가 다비치안경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고 있다. 대(代)를 이어 100년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김봉건 대표의 새해 힘찬 포부를 들었다. **INTERVIEW** | 이진창 발행인 **WRITE** | 이호 국장

다비치안경은 국내 최대 안경체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가장 높은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경사도 맞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은 상품·서비스 경쟁력,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하고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는 시상이다.

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환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안경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비치안경은 차별화된 교육 시설과 특성화된 교육으로 안경사의 실무 능력을 높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검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과 전문화된 7단계 시력 검사를 통해 고객의 눈 건강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6년 개업...292개 가맹점 운영
다비치안경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시를 준비중이던 김인규 회장은 매형이 운영하는 안경원을 방문하게 됐다. 여기서 그는 새로 맞춘 안경을 쓰고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 관심이 쏠렸다. “사람들의 표정은 새로





다비치의 브랜드들

김인규 회장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였다. 안경 도매상가와 영업을 잘하는 안경원에 들어가 3개월씩 근무하며 일을 배웠다. 그리고 1986년 안경사 면허제도가 도입된 후 제1회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 30년 넘게 안경장인이자 프랜차이즈 대표로 살았다.

김인규 회장은 부산 황실안경을 개업한 후 2000년 다비치 안경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2003년 다비치안경체인 법인 설립으로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진행, 프랜차이즈화에도 성공했다. 이후 2015년 안경테 브랜드 BBM 출시 및 2018년 온라인 스토어 '다비치마켓'을 오픈하는 등 가맹점 매출 증대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중앙일보가 주최한 '소비자의 선택'에서 안경원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에는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다. 다비치안경은 70평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오픈하고 있으며 현재 292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

고객행복과 다비치다음

김인규 회장은 지방의 도매형 안경원을 오픈한 이후 '고객행복'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고객 행복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형 안경원을 지속적으로 오픈했다. 여기서 다비치만의 경쟁력인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정찰 판매하는 정찰제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모든 매장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케어를 고민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다비치안경의 또 다른 장점은 전문적인 검사 전 고객과의 1:1 컨설팅을 통해 '맞춤'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체 교육원을 운영하고 안경사를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측정장비로 전문화된 검사도 제공한다. 바로 다른 안경 프랜차이즈와의 차별성 '다비치다음'을 위해서다. 김봉건 대표가 "우리는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정밀함으로 생활, 습관, 감성에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창업주인 김인규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봉건 대표는 현재 상임 대표로서 모든 경영 및 회사 업무의 관한 결정을 맡고 있다. 또한 회사의 성공의 기반이며, 향후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인재 경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핵심가치에 인재경영을 더하다

김인규 회장의 경영 철학은 고객 중심, 상생 봉사, 행즉가(행동하는즉시가능해진다)다. 3가지의 핵심 가치를 모든 경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같은 운영 철학은 김봉건 대표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여기에 김봉건 대표는 '인재 경영'을 더했다.

인간의 정보와 지식, 가치관과 열정, 창의력과 감성, 더 나아가 개인의 신념과 윤리 등이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재경영을 적극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성원을 키우고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김봉건 대표의 철학이다.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관리'

다비치안경은 흥망성쇠가 유독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20년 넘게 안경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는 철저한 가맹점 관리와 지원이 바탕이 됐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고객 정보 관리, 상품 주문 등 간편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ERP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 맞춤 리포트를 제공해 경영과 성장 지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과 가맹점별 컨설팅 담당자를 배정해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그리고 매월 가맹점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진행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고객 만족도 서베이를 진행해 상위 매장을 선정하여 우수 가맹점을 포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부봉사단 회의를 운영하며, 매월 전체 가맹점 점주 회의를 진행해 전략과 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맹점을 선정하여

CMPAS라는 TF팀을 운영해 1개월 간 컨설팅, 마케팅, 상품, 교육, 시스템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세상을 맑고 밝게 '다비치다운 길'

김봉건 대표는 소비자, 가맹점, 협력업체, 본사가 모두 만족하는 구조라면 프랜차이즈업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다. "경영철학은 'Light Your Life'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방향이 같아요. 다비치는 세상을 선명하게 보이는 일을 하고, 나아가 세상을 맑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시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맑고 밝게 다비치는 마음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기업 활동에서 다비치다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눈앞에 둔 '카테고리 확장' 프로젝트는 '건강기능 판매식품 판매'다. 궁극적으로는 얼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선보이려고 한다. 현재 눈(안경), 귀(보청기), 건강기능판매 식품을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순히 안경원이 아니라 눈을 케어하는 브랜드로서 인식되기를 바라는 김봉건 대표의 새해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KFN**



“광주전남 발전과 지회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장

김태훈 회장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만2000여개에 이른다. 가맹본부 수는 7000여개로 추산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올바른 운영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다. 산하 지회는 부산·울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 충청지회, 강원지회, 미주지회 등이다. 이 중 광주·전남지회가 지난 12월 말에 새로운 회장을 맞고 갑진년 새출발을 알렸다. 김태훈 회장의 신년 포부를 들었다. **INTERVIEW** | 이진창 발행인 **WRITE** | 이호 국장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프랜차이즈를 꿈꾸는 광주전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 여러분들을 무료컨설팅, 교육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광주전남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훈 신임 광주·전남지회장의 인사말이다. 김태훈 회장은 2009년 이자카야 ‘노미야’를 창업한 이후 개인자영업자 컨설

팅 400호점 이상, 프랜차이즈 컨설팅 20개 브랜드 이상, 프랜차이즈 개설 및 컨설팅 700호점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다.

“멀리 나아가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과 창업자 여러분들께 부족하지만 저와 협회의 노하우, 방향성을 많이 알려드려 광주전남 전체에 부자 사장님들 그리고 내일을 만든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주전남에 일자리 창출 등 광주전남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신임 회장으로 나온 이유다.

광주전남지회는 김태훈 신임 회장의 진두지휘아래 2024년 세부일정도 구성했다. 먼저 매달 정기월례회를 개최, 지역 현안과 가맹본부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앞장선다. 2월에는 월례회의와 성공프랜차이즈 강의로 마련돼 있다. 3월에는 산악회



창단과 우수기업 탐방이 일정이다. 5월과 6월에는 우수기업 탐방과 프랜차이즈 마케팅교육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회 네이버 카페도 운영된다. 지회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회원사 관리와 활동내용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카페에는 회원사를 포함해 협력사 소개와 정보, 회원사 소속의 브랜드 소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강의 등 교육정보 공유, 회원사의 새로 오픈 예정인 매장 공유와 소개 등 다양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완성했다.

소모임 및 그룹도 새롭게 구성, 관리될 예정이다. 김태훈 회장은 “단체 내 소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의 화합을 독려하며, 취미생활 공유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 한다”고 전했다. 소모임에는 회원들의 경조사를 함께 공유하는 경조사회, 좋은 아이템을 함께 연구해 브랜드화 시키고 교육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모임인 Brand Making People(BMP)이다. BMP는 4월 창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 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는 봉사회도 설립된다.

김태훈 회장은 “15~20개의 그룹을 만들어 각 그룹장이 회원들에게 연락하며 활동을 격려하는 중추 역할을 해줌으로써 회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좀 더 활동적인 광주전남지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광주전남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형프랜차이즈와 2024년 통합을 하였으니 많은 도움을 받아 광주전남지회의 발전에 기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LEW**

창업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시작과 성공 사업 동반자 (주)하이프랜차이즈

WRITE | 김은영 기자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성공은 모두가 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조건은 물론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가맹본부 수익구조 설계, 가맹점 오픈 교육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개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성공적 전개가 쉽지 않다.

또한, 브랜드를 알리고 가맹희망자 모객을 위한 마케팅, 모집된 가맹희망자들을 가맹계약으로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관련 분야의 사업적 인프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지만 신생기업이 모두 갖추고 사업을 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비록 가

맹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라도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특화된 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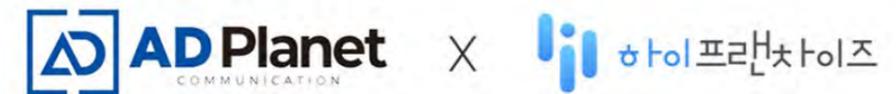
개인회사로 시작하여 올해 법인으로 전환한 창업 4년째 되는 (주)하이프랜차이즈(대표 김태규)는 프랜차이즈 사업화 set-up 구축 및 가맹본부 설립, 가맹 영업 모집 대행, 창업 설명회 주관,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개발,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인쇄 디자인 개발, 신상품 개발 사업, 신기술 개발사업,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 영상(유튜브) 기획 및 제작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실행과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하이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교육 및 컨설팅과 연구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회사 등 광범위한 사업적 인프라와 홍보, 광고, 점포개발, 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기반으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창업에서부터 운영까지 실무경험이 매우 풍부한 김태규 대표이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창업수요에 비해 내실 있는 경쟁력과 건실한 사업모델을 갖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하이프랜차이즈는 국내 창업 시장과 프랜차이즈사업의 환경 그리고 예비창업자와 가맹본부의 특성에 최적화 된 전략 수립과 성과중심의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전화 : 02-2233-4750, **홈페이지**: www.hi-franchise.com [177]

애드플래닛, 하이프랜차이즈와 맞손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문회사로 발돋움



(주)애드플래닛 커뮤니케이션(대표 신광호)이 하이프랜차이즈와 함께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문화에 나선다.

애드플래닛은 디지털마케팅을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콘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과 액티브한 협업을 통한 통합마케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9년에 설립한 후, 다양한 산업군과 매체를 통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체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애드테크 기업으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예로 POS와의 연동이 필요 없는 모바일 쿠폰 서비스 '모두의 쿠폰'은 다양한 가맹본사에서 사용 중이다. 기존의 난수 번호 등록 대신 매장전화번호 기입방식을 도입하여 소규모 브랜드 또는 대량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는 다수의 브랜드에서 널리 사용 중이다.

최근에는 매장의 고객 DB를 자동 수집하고, 고객발송용 SMS 메시지를 데일리 큐레이팅해주는 자체 서비스 '오투'를

개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CRM 마케팅이 어렵기만 했던 일반 매장 점주들에게 아주 손쉽게 고객관리의 길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평가다.

그 외에도 매장 전용 소액광고 패키지 '우리 동네 지도', 창업 문의 고객 DB를 이중 체크할 수 있도록 쌍방향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창업명동'을 연이어 출시해 명실공히 애드테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애드플래닛 신광호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에 맞춘 마케팅전략을 대중화하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여 업계 만연해 있는 마케팅예산 손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하이프랜차이즈와의 협업에 기대를 전했다.

이번 하이프랜차이즈와의 기업 제휴는 다양한 마케팅전략의 시도와 투명한 예산운영 그리고 가맹본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개발로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177]

● 명륜진사갈비 매출 TOP 50 가맹점 공개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570호점을 돌파한 가운데 매출 TOP 50 가맹점을 공개했다. 브랜드 관계자는 "월 2억원 돌파 매장이 24곳, 월 최고매출 1위는 경기DY점 3억 2956만원, 인천YS점 3억2046만원, 경기MM점 3억297만원 등 TOP 50위에 속하는 가맹점 매출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를 비롯해 프렌치레크, 통삼겹살, 닭갈비, 목살, 돼지껍데기 등을 1인당 1만8900원에 무한 제공하는 프리미엄 숯불구이 무한리필 고깃집 브랜드다. 좋은 퀄리티의 구이류와 최상급 숯불을 통해 맛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Brand Highlight

● 본죽&비빔밥 가맹 1000호점 열어 "특수 상권 진출"

본아이에프는 올해 1월 11일 본죽&비빔밥 가맹점 1000호점인 '인천석바위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식 프랜차이즈 단일 브랜드로 1000호점을 돌파한 유일한 사례로, 2015년 본죽&비빔밥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본아이에프는 2015년 본죽&비빔밥 가맹 사업 시작 이후 가맹점 확장 배경에 대해 신규 출점과 함께 기존 본죽 매장의 전환을 꼽았다. 본죽 매장이 본죽&비빔밥으로 전환한 사례는 2019년 57건에서 2022년 134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를 통해 본죽&비빔밥은 1000개, 본죽은 65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게 됐다.



Brand Highlight

● 이디야커피 생딸기 음료 5종...20일 만 40만잔 돌파

이디야커피가 선보인 시즌 메뉴 생딸기 음료 5종(▲제철 담은 생딸기 주스 ▲딸기 듬뿍 라떼 ▲딸기 바나나크림 라떼 ▲생딸기 허니 블랙티 ▲생딸기 바나나크림 플랫치노)이 출시 직후부터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출시 20일 만에 40만잔 판매를 돌파했다.

특히 딸기와 우유를 조합한 딸기 라떼 2종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딸기 듬뿍 라떼'와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한 '딸기 바나나크림 라떼'는 12월 21일부터 1월 9일까지 20일간 ICED 밀크 베버리지 음료 판매량 중 약 33%를 차지하는 등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이디야커피가 출시한 생딸기 음료 5종은 전국 이디야커피에서 4월 8일까지 시즌 한정으로 운영되며 '딸기 듬뿍 라떼'는 연중 상시 판매한다.



● 쿠우쿠우 '2024 전국 우수 가맹점 시상식' 진행



초밥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쿠우쿠우가 지난 12월 26일 '2024 전국 우수 가맹점 시상식'을 진행했다.

쿠우쿠우 본사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매년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해 매장을 운영해 온 우수가맹점선정을 통해 우수 가맹사업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위생, 매출, 메뉴, 관리우수 각 부문에서 본사의 심사기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6개 매장을 선정해 상장 및 다양한 혜택을 수여했다.

우수가맹점 중 위생부문은 여수점(김천혁신점), 매출부문은 원주무실점, 메뉴부문은 경성대점과 대전동구점, 관리우수부문은 김포운양점이 선정됐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전국 가맹점주님들 덕분에 본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쿠우쿠우만의 경영 철학으로 가맹점주님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0일에는 자연을 품을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못에 새해 첫 매장을 오픈했다. 쿠우쿠우에 대한 대구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쿠우쿠우 수성못점은 칠곡점, 서구점, 시지점, 현풍테크노점에 이어 대구에서 5번째로 오픈하는 매장이다.

쿠우쿠우 수성못점은 신선한 초밥 메뉴뿐 아니라 즉석코너, BBQ, 디저트 등의 다채로운 메뉴들로 최상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유실과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수성못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고 데이트, 산책, 가족모임을 위해 오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라며 "2024년도 대구를 시작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고객들이 쿠우쿠우를 통해 행복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쿠우쿠우는 정직, 친절, 청결이라는 경영 철학 아래 2011년 안산 1호점을 오픈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80개 매장을 돌파했다. **KFN**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가맹점에도 필요한 스마트상점 기술 열린경영으로 정보제공 가맹본부 되길

WRITE | 이경희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 배달 사업이 많이 힘들다. 그동안 배달을 시키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선 것도 이유이지만 배달 앱의 정책이 배달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린 것도 한몫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최저 배달금액과 배달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화곡동에 있는 카츠야미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은 2022년까지는 배달의 의존에서 사업을 했다. 그러다가 2023년 배달과 내점을 병행하는 매장으로 전환했다. 카츠야미 화곡점이 내점 고객을 받는데 도움이 된 것은 디지털 사이니지와 키오스크의 도입이었다.

배달용 매장이 내점형으로 전환하려면 내점 고객을 응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카

츠야미 화곡점은 이 문제를 스마트상점 기술로 해결한 것이다. 키오스크 덕분에 주문과 결제 응대에서 해방되거나 내점응대와 배달주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메뉴안내와 각종 이벤트 안내 등으로 내점형 고객에게 판매원의 설명없이도 정보제공하고 마케팅 효과를 냈다. 내점과 배달을 병행하면서 이 매장은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점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의

지원으로 기술을 도입했다. 서빙 로봇 도입처럼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 키오스크나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 칠판 등 기본 기술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가 도입 비용을 지원해준다.

2023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3000개가 넘는 소상공인 매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상점 기술을 도입했다. 이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많이 있다. 가맹점주들이 이웃에서 지원받은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입을 한 것이다.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 이후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도 스마트 상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매장들이 많다. 가맹본사에서 가맹점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능이 정보 제공이다.

시장 환경 변화나 경영 노하우, 동일한 브랜드의 경영 우수 사례 등 정보제공은 슈퍼바이저가 직접 찾아갈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에 비하면 훨씬 간편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가맹점 대상으로 가맹본부에 원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정보제공에 대한 요청이 많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금액도 크지 않다.

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금액도 크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매출 활성화와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줄 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지원정책정보제공센터가 시행하는 소상공인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가맹점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초에는 한시적으로 126만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하며 이밖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교

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이다.

이제 스마트상점 기술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 구인난 해소, MZ 세대들과의 접점 확대, 마케팅 활용 등 스마트상점 기술의 도입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

개별소상공인의 경우 기술을 도입해도 도입된 기술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맹본사는 다르다. 가맹본부에서 디자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할 수 있어 가맹점들의 스마트상점 기술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령 서빙로봇을 도입한 가맹점의 서빙로봇 이름을 자율적으로 짓게 하고 인기투표 이벤트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가맹점과 소통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열린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가맹점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도와줘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내부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 열린 경영을 통해 외부에 있는 자원을 우리 사업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성장에 필요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1월부터 빠르게 공고가 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정책을 실행하고 관장하는 곳이 소상공인지원정책정보제공센터이다. 가맹본사에 국가시책을 알아보고 그런 정보를 찾아서 가맹점에 전달하는 전담자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KFI]**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부자비즈 의장
창업·마케팅 분야 저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주임 교수

저서

CEO의 탄생
이경희 소장의 2020창업트렌드
내사업을 한다는 것

강의

세종대 MBA, 동국대 MBA,
경희사이버대학 호텔외식MBA,
한국방송통신대학 프라임스쿨,
세종사이버대학 프랜차이즈 전략,
신사업개발, 상권입지론, 외식산업론,
기업가정신 등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칼럼

2024년 프랜차이즈산업의 전망

WRITE | 장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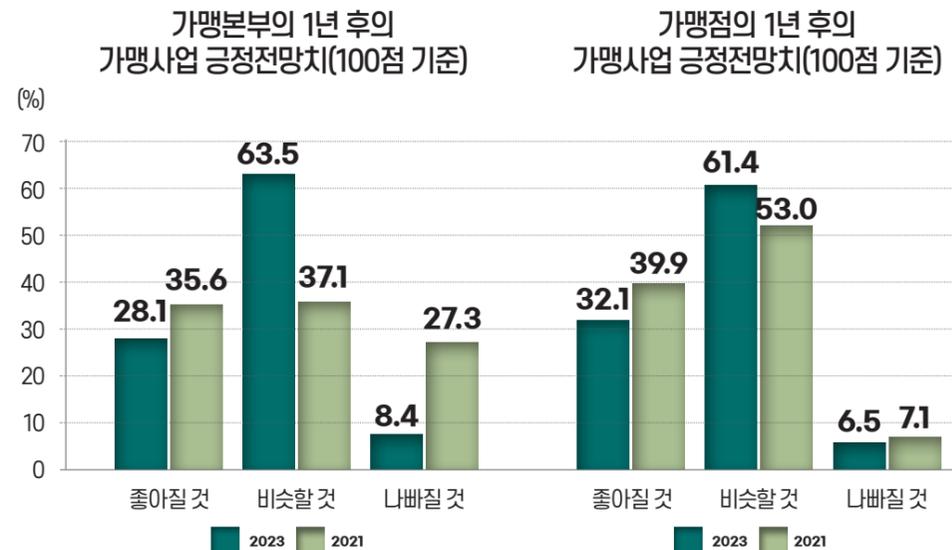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다. 비록 희망을 가져보지만 지난 몇년은 절망과 기대, 고통과 희망이 수없이 교차한 시간들이었다.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의 감소로 인해 부진이 계속될 것이다. 국내 주요그룹의 회장들부터 자영업자들까지 올해 가장 큰 경영화두는 위기극복이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23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의 의뢰를 받아 가맹본부 800사 및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후 즉 2024년도 가맹사업전망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50% 이상이 비슷하리라고 전망했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먼저 가맹본부들은 1년 후 가맹사업실적에 대해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63.5%였다. 좋아질 것 28.1%, 나빠질 것 8.4% 순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치가 부정적 전망치보다 19.7%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사업자들 또한 24년 전망치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1년 후 사업전망에 대해 비슷할 것 같다가 61.4%이며, 좋아질 것 같다가 32.1%, 나빠질 것 같다가 6.5%로 대체로 향후 사업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한국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없지만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프랜차이즈산업 만큼은 가맹본부와 브랜드 및 점포 수는 증가할 것이다.

특히 불황기에는 취업이 어렵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비창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좀더 편리하고 용이하면서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보장되는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프랜차이즈산업 안에서 가맹본부와 브랜드 그리고 가맹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

열할 것이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신년을 맞아 많은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과 업태는 달라도 공통적인 것은 올해를 모두가 위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 또한 공통적으로 혁신, 변화, 비용 절감, 조직의 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가맹본부 대부분의 매출액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맹점의 위기는 곧 가맹본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이 올해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을 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이익과 직결되는 우수한 제품 개발과 고객관계 강화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가맹점주와의 생산적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업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올해만큼은 1월에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12월에는 환성과 기쁨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희망해 본다. **KFN**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영장기각과 영장발부 사이

WRITE | 안철현

우리 법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받아들였을까? '현' 대표와 '전' 대표의 차이 때문일까?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알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의 무게에서 평가를 난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사건과 비교해 보면 더욱 오리무중이다. 두 정치인에 대한 영장기각과 발부의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다. 독자들도 미디어에서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다시피 법원은 범죄혐의가 있는지 또는 그 혐의가 중대한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소위 법률전문인 필자도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경험해 봤지만 예측이 어려운 건 다르지 않다. 물론 개개 사건이 얼핏 보기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어서 자로 잰 듯이 개개의 사안에서 판단하

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구속은 사람의 신변을 극도로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데는 의문이 없다.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

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오랜 사법개혁의 역사와 향후의 사법개혁 담론을 끄집어내야 해서 너무 거창하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미 군정 하에서 우리 검찰은 법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확보했다. 행정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와 대등한 위치를 선점했다. 대한민국 모든 검찰청사를 법원 건물과 나란히 그리고 똑같은 양식으로 신축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군부독재를 지나오면서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부역하면서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검찰 스스로도 모르는 않는다. 다만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자신이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를 일단 구속시켜 놓고 보는 이상한 관행이 사권 남용이라는 필자의 생각이 과연 법질서를 저해하는 잘못된 생각일까?

거기다 이 구속이라는 도구가 자신의 권력을 더 돈독히 하고 부역하는 세력의 정적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조금이라도 활용된다면 끔찍했던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진영이 권력을 잡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정치의 사법화가 진화하고 있는 요즘 더더욱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목도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시 한번 언급하건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들이 과연 거약인지,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서 반드시 구속할 사안인지는 필자도 아직 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최근 들어 그동안 더디지만 조금씩 진행되어 오던 사법개혁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다. 오로지 모 정치인의 영장이 기각될 것인지 발부될 것인



지만 반복적으로 지켜본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라 매우 큰 피로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이 청구되다 보면 법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영장이 청구되고, 1~3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그날 오전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대부분 그날 밤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필자는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헛갈린다. 어느 진영 정치인지에 대한 수사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옹호하는 썰전이 마구 튀어온다. 그나마 검찰의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이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선입견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필자의 눈에도 구속 기준이 모호하기는 매한가지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도 신이 아닌 이상 하루에 수십 건씩 쏟아지는 사건을 접하면서 어떻게 자로 잰 듯 정확히 판단하겠는가? 축적된 구속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원의 영장발부 또는 영장기각 이유를 보면 얼마나 구속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실한지 사실상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 검찰의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부터 일단 자제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K77]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2016년 - 송파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2016년 - 강남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현/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
현/(주)소리바다 감사
현/경희대총동문회 감사
현/사단법인 민주정치아카데미 상임이사
T : 02-3478-6011 /
E : bebopmonk@hanmail.net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세금 없이 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세금 없이 하는 방법 5가지

WRITE | 최인용

본사 및 가맹점을 시작하는 경우에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창업시에 시작하는 세금없이 할 수 있다. 청년이나 지방에서의 창업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세금의 절세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청년은 지방에서 창업하면 100% 세금이 없다. [조특법6조]

청년 창업 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하게 되면 개인 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34세 미만을 청년으로 본다. 군대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청년은 특정 업

종에 대해서 신규로 창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득이 있는 해부터 5년간 100%를 감면해 준다. 예규 판례를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인수 및 사업의 확장 등에는 인정해주지 않는 판결[대법원2020두41948]이 많으므로 창업 감면은 미리 사업자 등록 전에 명의를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수도권 이외 창업 50% 감면 [조특법6조]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의 창업이라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게 되면 5년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청년 창업과 마찬가지로 예규나 심판례를 보면 신규창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면 업종이 중요하다. 업종이 아닌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3.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은 100% 감면 [조특법 121의3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24년 개정세법에 의해 신설되는 규정이다.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발전법에 의하여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투자와 양도 및 증여에 대한 다각도의 세액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에 있어서도 기회발전 특구 내의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에 대하여 소득 발생년도와 과세년도부터 5년간 100%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추가로 2년간 50%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input type="checkbox"/>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input type="checkbox"/>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6.12.31.

4. 창업을 하면서 고용만 해도 감면 [조특법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창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고용을 수반한다.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고용증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 세액감면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도권에서도 고용을 하게 되면 9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청년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공제한도가 1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외에서는 1550만원을 3년간 공제해 준다.



1. 청년은 지방에서 창업하면 100% 세금이 없다. [조특법6조]
2.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수도권 이외 창업 50% 감면 [조특법6조]
3.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은 100% 감면 [조특법121의33]
4. 창업을 하면서 고용만 해도 감면 [조특법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5.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통해 세금 없이 창업[조특법30조의5]

5.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통해 세금 없이 창업[조특법30조의5]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있다면, 그것도 세액감면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에게서 자금을 받은 18세 이상의 자녀가 창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받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5억원을 초과하는 50억원(10명 이상 고용시 10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창업자금은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0년 내 폐업을 하지 않을 조건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세금혜택은 많이 있지만 사후관리규정에 의해 추징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177]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문세무사
 마곡지주협의회, 하남미사지구지주협의회 전문세무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력위원장
 T : 02-555-5025
 E : ciy0130@daum.net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칼럼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WRITE | 이금구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등의 휴가제도와 근로자 지원제도와 사업주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난임치료 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난임치료는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말하며,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최초 3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24년 하반기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예정이다.
- 2.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6주 이후 1주마다 1회 주어야 한다.
- 3.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5일, 12주이상 15주 이내 10일, 16주이상 21주

- 이내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의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4.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허용해야 한다. 24년 하반기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
- 5.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한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 중이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6.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최대 210만원),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도 정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7.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휴가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 고용보험으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24년 하반기 휴가 분할 사용 횟수 1회에서 3회, 정부급여 5일에서 10일, 다둥이 출산 시 휴가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8.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휴직기간은 1년 이내)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24년 하반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상향지급(통상임금 80%에서 100%) 예정이다. (3+3)에서 (6+6)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9.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4년 하반기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 사용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급여도 주5시간에서 주10시간으로 확대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월 40만원)한다.

10. 수유시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11.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된다.

12.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휴직기간은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원한다. [77]



이금구

노무법인 C&B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1991년 제3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2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

2015년 (사)한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고문

2016년 GS25,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T : 1544-8323 /

E : www.franhr.com



팝마트



하메이

중국 신유통 현장을 가다 - ②

WRITE | 노승욱 특기기자

4차 산업 기술 접목... '중간 단계' 생략

중국의 신유통 혁명이 고조되고 있다. 노숙자도 QR코드로 적선을 받는 것은 이제 화제도 아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지역본부가 가장 많은 도시 베이징에 가서 코로나 이후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봤다.

- 틱톡 라이브커머스의 힘 - 3시간에 800만원 매출 '쑹'

'중국의 스타필드'에 해당하는 '호성회'에선 한 크리에이터가 한 매장에서 틱톡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하고 있었다. 소형 조명 장치를 부착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매장을 오가며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여주며 홍보한다.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얘기하며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틱톡은 피드가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어, 매장

을 홍보하는 피드가 뒤편에 있을 때 속사포 같은 입담으로 온라인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크리에이터는 3시간 동안 틱톡 방송으로만 무려 800만원 어치의 판매량을 올렸다.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이 목걸이나 머리띠에 QR코드를 크게 그려 놓고 고객들에게 찍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이다. 직원마다 QR코드가 다르니, 어느 직원을 통해 구매가 이뤄졌고 매출이 올랐는지 성과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 대응(CRM)뿐 아니라 직원 관리(HRM)도 더욱 효율화된 것이다. 이 밖에도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통 산업들도 DX 대열에 동참했다.

1669년에 설립된 중의학 브랜드 '동인당'은 우황청심환을 처음 개발한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글로벌 IT 회사 '동인당 국제'를 설립, IT 기술을 활용한 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 사진을 촬영한 후, 허의 빛깔로 건강 상태를 진단, 맞춤형 건강차를 추천하고, 태극권 연마를 위한 스마트 거울도 비치했다.

'해마체 사진관'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즉석사진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온라인에서 원하는 캐릭터나 스타일을 선택하고 예약하면 메이크업부터 코스프레 의상까지 제공해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령 자신이 백설공주로 꾸민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그에 맞는 의상과 헤어 디자인, 화장에 사진 촬영, 보정까지 다 해준다. 2014년 오픈해 50개 성에서 2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 디지털 경제 비중 40% -체험 소비 인기...신유통 확산 지속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유통 혁명이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디지털 차이나'에 부합한다고 진단한다. 다양한 분야의 유통이 4차 산업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중간 단계'가 생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은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국 인구가 4억명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중국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서는 등 중국 신유통이 급속하게 성장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 MZ세대와 같이 중국 MZ세대들도 소비에 있어 체험적인 면을 추구한다는 점도 신유통이 확산하는 이유다. 다만 중국 체제의 획일성·경직성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저해 요소로 보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은중학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는 "중국 젊은 층들이 소비 과정에서의 체험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유통 부분도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다만 중국의 시진핑 체제 특유의 경직성에 따라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전병서 와이즈에프엔 중국 경제연구소장은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체험한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다"라며 "앞으로는 중국 유통이 전체적으로 온라인화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싱커피

BOX Interview

윤승진 만나통신사 대표

30분 내 모든 물건 배달 네일아트 등 '서비스 배달'도

윤승진 만나통신사 대표는 차이나 디지털 트렌드-마케팅 컨설팅을 맡는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다. 중국 비즈니스 학습 여행 전문기업인 만나통신사는 중국의 변화를 알리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자 재능 기부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고 확장되면서 설립된 법인이다. 그는 "중국의 비즈니스를 한국에 적용하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Q. 중국 비즈니스 학습 여행을 시작한 이유는.

A. 중국이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일상에서의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의 활용이 대중화되어 있다. IT 강국인 한국도 기능적으로 구현돼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대중화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본 걸 한국에 돌아와 적용하고 도입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5년 전 만나통신사와 중국에서 '배달커피'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경험하신 분이 현재 한국에서 그 시장의 선도 브랜드를 만든 바 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가 한국에서는 없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현지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 여정을 설계하는 비즈니스학습 여행을 만들었다. 아울러 한중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비즈니스를 연결한다는 사명감도 있다. 많은 분이 중국을 새로운 관점으로 경험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길 희망한다.

Q. 코로나 팬데믹 전후 중국의 변화를 꼽자면.

A. 중국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됐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 30분 안에 모든 물건을 배달 서비스를 통해 수령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배달도 활성화해서 네



윤승진 대표

일아트나 메이크업 출장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다. 편리한 서비스의 개발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혁신을 통해 자리를 잡았다.

또한 코로나로 고객과 디지털 연결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고 마케팅 방법을 만들었다. 고객을 하나의 채팅방으로 관리하는 사적 트래픽, 숏폼 콘텐츠를 통한 오프라인 연결과 유도 등 브랜드가 어떻게 디지털 연결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고 소통하는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Q. 앞으로 경영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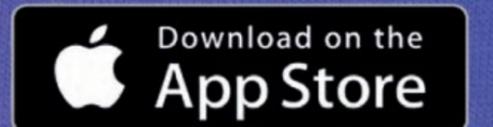
A. 한중 비즈니스를 새롭게 연결할 것이다. 만나통신사는 옛날 서로의 문화와 신문물을 교류하던 통신사를 모티브로 탄생한 비즈니스다. 단순히 보고 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게 목표다. 또 한중관계가 어려운 지금,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기업가에게 다양한 연결과 교류를 제공하고 싶다.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다. 이해관계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아닌 객관적인 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으로 임할 것이다. **KFN**

창톡

장사 어려우시죠?

프랜차이즈 대표,
맛집 사장,
다점포 점주와

1:1 상담을 통해
고수의 비법을
받아보세요!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창톡'을 검색해보세요!



한국프랜차이즈協, 3.4 개강 '제13기 KFCEO 교육과정' 원우 모집

역량·리더십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차세대 프랜차이즈 리더 양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3월 4일 개강예정인 '제12기 KFCEO(K-프랜차이즈 CEO) 교육과정'(주임교수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 신입 원우를 모집 중이다. 제13기 과정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6월 3일까지 14주간 매주 월요일 14~18시에 진행된다.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대표 또는 2~3세 경영자, 본사 창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종 기업 CEO, 전문직 등 60여명의 원우들이 리더 역량을 강화할 교육을 수강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함께 한다.

이번 13기 과정은 유수의 성공 CEO들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현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전 기수에 비해 매주 1시간 가량의 심화 포럼이 커리큘럼에 추가되어 정보 공유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 협회 박람회 참관, 1박 2일 국내외 워크숍, 우수 프랜차이즈 현장 탐방, 환영·친교 만찬, 원우회 내 골프, 산악 등 각종 친목 분과위원회, 협회 행사 연계 등 인적 네트워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전 맘스터치 회장) ▲김인규 다비치안경 회장 ▲김성운 이백장돈까스 대표 ▲고경진 환공어묵베이커리 대표 ▲

조성욱 팔각도 대표 ▲임상진 생활맥주 대표 ▲정민섭 미도인 대표 ▲박효순 나루가온에프앤비 회장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등 성공 CEO·전문가들과, ▲이경희 KFCEO 주임교수 ▲김상훈 서울대 경영대학장 ▲문정훈 서울대 교수 ▲우종필 세종대 교수 ▲정한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등 기라성같은 최고 권위의 강사진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500만원(vat 포함)이며, 협회 회원사 추천(10%), 협회 회원, 연대FCEO·프랜차이즈연구원 최고전문가 과정 동문(20%), 재수강자(50%) 등 다양한 수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협회 교육팀 담당자(02-3471-8135~9 내선 2)에 문의하면 된다.

<p>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p> <p>KFCEO 13기 '과정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 CEO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주임교수)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 ▶(주임교수) 김성운 이백장돈까스 대표 ▶(주임교수) 고경진 환공어묵베이커리 대표 ▶(주임교수) 김인규 다비치안경 회장 ▶(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p>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p> <p>'과정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임교수)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 ▶(주임교수) 김성운 이백장돈까스 대표 ▶(주임교수) 고경진 환공어묵베이커리 대표 ▶(주임교수) 김인규 다비치안경 회장 ▶(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p>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p> <p>'수강생 모집'</p> <p>▶(주임교수)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p> <p>▶(주임교수) 김성운 이백장돈까스 대표</p> <p>▶(주임교수) 고경진 환공어묵베이커리 대표</p> <p>▶(주임교수) 김인규 다비치안경 회장</p> <p>▶(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p> <p>▶(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p> <p>▶(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p>	<p>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p> <p>'수강생 모집'</p> <p>▶(주임교수)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p> <p>▶(주임교수) 김성운 이백장돈까스 대표</p> <p>▶(주임교수) 고경진 환공어묵베이커리 대표</p> <p>▶(주임교수) 김인규 다비치안경 회장</p> <p>▶(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p> <p>▶(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p> <p>▶(주임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p>



박효순 연대FCEO 제11대 총동문회장

박효순 수석부회장, 연세대 FCEO 제11대 총동문회장 취임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이하 연대FCEO) 총동문회 11대 회장에 박효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나루가온에프앤비 회장)이 취임했다.

연대FCEO 총동문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2023 연세대 FCEO 총동문회 이취임식 & 송년회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연대FCEO 총동문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OB맥주, 연세대 상남경영원이 후원했다.

이날 박효순 수석부회장은 2019년부터 9대·10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김성운 총동문회장을 이어 제11대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됐다. 박 신임 총동문회장은 2024년 제43기부터 2년간 연대FCEO 교육과정의 운영과 동문들의 소통을 이끌어 가게 된다.

정현식 협회장은 축사에서 "김성운 회장 임기 동안 본 과정은 친목과 의견 교환의 장에 머무르지 않고, 본연의 취지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우는 동문회로 탈바꿈했다"라고 하면서 "동문들은 더욱 깊어진 교육과정과 다양한 포럼 및 탐방

으로 식견과 견문을 넓히고, 신진 CEO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우리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했다.

또, "박효순 제11대 총동문회장은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의 뛰어난 역량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남녀와 세대를 아우르며, 우리 산업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송년회에는 총 300여명이 참석해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13일에는 제42기 연대FCEO 수료식을 통해 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원우 49명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수료식에는 박효순 총동문회장, 김재영 협회 수석부회장, 박용석 연세대 상남경영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보였다.

연대 FCEO 과정은 올해 제43기 과정을 3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진행한다. 수료생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 상패, 원우 추천서 수강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KFA]



협회가 1월 10일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과 업계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방문 물가안정, 인력난 해소 등 논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과 1월 10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물가동향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날 세제 지원 정책, 외국인력 고용개선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물가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일부 가격인상 업체도 있으나 상당수 업체들은 원가 절감,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협회는 올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음식점업 시범사업과 관련해, 조기 안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정책 수립, 제도정비 및 개선, 교육 계획 등을 건의했다. 또 지난해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진출이 영세·중소 업체들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과 예산 도입을 건의하였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외식업 현장 고충이 많았던 만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외에 해외진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토론회(위크숍)(6월),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11월) 등을 개최하여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협회와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외식기업과 함께 물가안정, 경쟁력 제고 방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전했다. **KFA**

대구·경북지회 소식(지회장 김병철)

12월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12월 6일(수) 호텔 인터불고 행복한 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진행했다. 귀빈들과 대구경북지회 회원사들이 함께 23년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으며 다가오는 24년 갑진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상·하반기 교육예정

2024년 교육은 2차례 계획을 두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에서 7월에 이어질 상반기 교육에서는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디딤돌이 되어줄 외식프랜차이즈 기본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에서 11월에 이어질 하반기 교육에서는 외식프랜차이즈 스킬업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KFA 교육 참가문의 053-626-7664

2024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인력 전문 인력 양성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디딤돌이 되어줄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 연내	교육과정 및 시간
2024. 06. ~ 2024. 07.	외식프랜차이즈 기본과정
2024. 10. ~ 2024. 11.	외식프랜차이즈 스킬업과정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KFA 교육참가 참가문의 053-626-7664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2024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김병철)가 주최 주관하는 '2024 KFA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대구'가 2024년 5월 09일(목)~11일(토) 대구 엑스코 서관 2홀에서 열린다. 내년에 개최되는 박람회를 위해서 8월부터 홍보를 시작했으며, 2023년 5월 올해 박람회에서 참가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2024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 많은 준비와 홍보를 하고 있다. 2024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 참가문의 053-626-7664

2024 KFA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대구

5.9(목)~5.11(토)
대구 EXCO 2홀

대구광역시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 트렌드와
성공신화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공동 주최

대구광역시
최대 방문객

프랜차이즈
정보를 만나요!

대구 사무국 : 053-626-7664
www.kfashow.co.kr
E. kfadg7664@naver.com

부산·울산·경남 지회 소식(지회장 오몽석)

월례회의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매달 셋째주 화요일 월례회를 개최한다. 9월 19일(화) (9월 정기월례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본부에서의 "사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및 Q&A" 간담회가 함께 진행됐다. 10월 17일(화), (10월 정기월례회)에서는 리맥스코리아의 창업플랫폼 소개와 협회의 현안과 소식을 회원사들과 공유했다. 11월 21일(화)에는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부산을 앞두고 2023년 마지막 (11월 정기월례회)가 개최되었으며, 많은 회원사들이 참가하여 소통하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2023 10월, 11월 정기월례회

정기 봉사활동 진행

부울경지회는 매월 세번째 목요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봉사활동이 지나고 9월 21일(목), 10월 19일(목), 11월 16일(목), 12월 21일(목)까지 딱 채워 2023년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11월에는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계획했다. 연말에는 지역나눔봉사의 일환으로 성금 전달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부울경지회는 계속해서 프랜차이즈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2024년에는 현재 시행중인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이외의 봉사도 계획중이다.



2023 11월 정기 봉사활동, 2023 모라종합사회복지관과의 간담회

프랜차이즈 체험창업 프로그램

2023년 8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2023 프랜차이즈 체험창업 프로그램 - KFA 공동교육>은 09월 18일(월), 부산 2차 공동교육이 진행됐다. 10월 23일(월), 부산 3차 공동교육이 진행되어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11월 23일(목)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부산) 박람회장에서 가맹점주들과 함께하는 창업토크쇼가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공동교육은 11월을 마지막으로 내년에 다시 계획중이다.



가맹점주와 함께하는 토크쇼 (특별강연)

정기 등산모임

매주 둘째주 토요일, 회원사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지회 등산회의 정기모임이 있다. 10월 14일(토) 아침에는 황령산으로, 11월 11일(토)에는 해운대 장산으로 등산회 회원 및 부울경지회 회원사들이 함께 등산을 다녀왔다.



2023 부울경지회 등산회 10월 정기모임

프랜차이즈 아시아 필리핀 2023 박람회 참가

10월 27일(금)~29일(일), <프랜차이즈 아시아 필리핀 2023 박람회>와 WFC총회(세계프랜차이즈협회)가 필리핀 마닐라 SMX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에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부울경지회 오몽석 회장과 박상용 부회장, 송창진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부울경지회 오몽석 회장의 브랜드 불막열심이 K-프랜차이즈 브랜드들과 대표로 참가하여 참관객을 만나고 왔다.



<프랜차이즈 아시아 필리핀 2023 박람회>와 WFC총회(세계프랜차이즈협회)의

부산·울산·경남 지회 소식(지회장 오몽석)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수료

11월 15일(수), 5월부터 시작 되었던 제5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의 수료식이 있었다. 총 28명의 교육생 모두 수료하였으며 수료식에는 부울경지회 오몽석 회장과 남구만 직전회장, 정재광 사무총장, 4기 원우회 직전 구정민 회장, 부자비즈 이경희 소장이 참석하여 졸업을 축하했다. 오몽석 회장은 "이번 12주 교육과정이 멋진 5기 원우님들의 사업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교육이 끝났어도 부울경지회는 항상 원우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것이니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5기 입학식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수료라게 감명스러우며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5기 역시 부울경의 끈끈한 단합을 증명하듯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6기는 2024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부산프랜차이즈사관학교 제6기 희망자는 협회로 문의 051-761-2066



제5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수료식

신입회원분과 정기모임

11월 17일(금)에는 <2023년 신입회원분과 정기모임>이 개최됐다. 이번 신입회원분과 정기모임은 올해 마지막 분과모임인 만큼 많은 신입회원사들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협회가 일상의 또 다른 활력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신입회원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부울경지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는 신입회원분과 모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23 신입회원분과 정기모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부산 개최

11월 23일(목)~ 25일(토), 벡스코 제1전시장 3B홀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주최주관하는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부산>을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3일 동안 1만2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참가사들을 만났다. 국내외 100여개의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참가해 창업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세미나 및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로 예비창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참가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으로 재 참가율이 76%에 임박할 정도로 2024년 부산 박람회를 기대하고 있다.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부산 개막식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2차 지회 간담회

11월 23일(목), 부산 센텀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부울경지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2차 지회간담회>가 개최됐다. 본회 및 각 지회의 사업 현황, 정보전달, 소통 활성화, 지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2차 지회간담회

네트워킹 만찬

11월 23일(목) 부울경지회에서는 <2023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부산> 박람회에 참가한 참가업체들에게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공유,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의 비전을 전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참가사들과 소통하고자 <네트워킹 만찬> 자리를 마련해 프랜차이즈 산업인으로서의 결속력을 다졌다.



<202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송년의 밤> 단체사진

2023년 송년의 밤

12월 13일(수) 롯데호텔 부산본점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에는 부울경지회의 많은 임원들과 회원사들, 사관학교 수료생들이 참석하였으며, 본회 정현식 협회장, 각 지회 지회장, 협회 임원과 많은 내외빈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덕분에 행사를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2024년 3월 ~ 4월 교육일정 안내

※ 자세한 커리큘럼 및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및 협회 홈페이지 www.ikfa.or.kr 참조 바랍니다.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가맹점 CS

기 간	3월 7일(목)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역량 향상
훈련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 고객관리 및 응대서비스

[재직자 무료교육] FC 빅데이터 상권분석(기초)

기 간	3월 14일(목)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상권 및 점포개발이론, 관련 기본지식을 학습을 통해 가맹점 입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역량 함양
훈련내용 : 상권 및 입지분석 개념 및 프로세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권 유형별 입지전략, 상권분석 데이터수집 및 프로그램 활용 기초 등

[재직자 무료교육] FC 빅데이터 상권분석(심화)

기 간	3월 15일(금)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가맹상권분석에 필요한 정부·공공·민간기관 상권분석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활용하여 실제 상권분석데이터 수집 및 분석안을 도출하는 능력 함양
훈련내용 : 빅데이터 활용 상권 모델링, 상권입지 분석, 상권분석보고서 작성 등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계약의 이해

기 간	3월 28일(목)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가맹계약 작성 및 해석방법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핵심 내용 학습을 통한 가맹계약의 효과적인 체결 및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조항별 검토 및 작성 실무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상생과 분쟁예방

기 간	4월 4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전액 무료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직영점 경영분야 업무수행자
목 표 : 가맹사업 단계별 실제 분쟁사례 및 예방 방안과 가맹본부-가맹점 간의 갈등관리 및 상생 전략을 학습을 통해 가맹사업 분쟁 사전예방 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사업 분쟁예방 전략 및 상생방안, 가맹점 갈등 예방 및 협의 전략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점 노무관리 실무

기 간	4월 11일(목)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가맹사업과 직결된 노동법 및 노무관리 실무 방법 및 최근 고용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학습하여 가맹점 인적자원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사업 근로환경 변화, 가맹점 노무관리 실무

[재직자 무료교육] FC 가맹영업

기 간	4월 18일(목)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전액 무료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경영기획분야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가맹점 영업전략 수립, 고객상담 전략 습득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영업 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영업전략 및 스킬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가맹점 CS

기 간	4월 25일(목)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역량 향상
훈련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 고객관리 및 응대서비스

2023.12.6~2024.1.8 신규회원 현황

구분	사업자대표	회사명	브랜드명	업태	가입일
정회원	조영훈	(주)영영애드	옥된장, 영영상점, 더볼로닭	외식업	2023.12.06
	정관영	(주)비에스비푸드	청년피자	외식업	2023.12.21
	원묵	(주)푸름에프앤에스	토마토김밥, 본말감자탕	외식업	2024.01.02
	김정호	(주)장수이엔에프	장수본가해장국	외식업	2024.01.08
협력회원	김성태	(주)용오름	배달의민족(공식 협력사)	서비스업(광고대행)	2023.12.11
	박규태	(주)내일시장	내일시장	서비스업(전자상거래 소매중개)	2023.12.18
	황세호	(주)삼화이노랩	창업픽	정보통신업(창업플랫폼)	2023.12.19
	정상희	행정사법인 광화문	광화문	서비스업(법무)	2023.12.19
	손소희 본부장	금산인삼협동조합	금산인삼협동조합	제조업(홍삼,인삼)	2023.12.21
	정병실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로고스	서비스업(법무)	2024.01.03
오만석	(주)엠에스벤처	발주닷컴	서비스업(소프트웨어)	2024.01.0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개정 2016. 06. 30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하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리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방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III.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착한 K-프랜차이즈는 일·자리·상생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선도합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회원사 100여곳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 협력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WFCA(세계프랜차이즈협회)·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총회 참가·개최로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 업계와 교류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상생으로 서민경제를 지탱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 GDP의 6.9%(매출 120조원)와 경제활동인구의 4.5%(종사자 수 125만 명)를 갖춘 기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창업의 순기능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혜택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 ·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사입니다.

혜택 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의 요령!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부스비 10% 환급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개최 부스 참가 시 행사 후 부스비 10%의 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혜택 2
혜택 3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해외진출 사업지원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정부무료교육 외 프랜차이즈 국가인적자원 무료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최고전문가, 프랜차이즈 5.0리더, 프랜차이즈사업 전략전문가, 슈퍼바이저 전문가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혜택 4
혜택 5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각종 정책 정보 제공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고경영자(CEO)대상 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혜택 6
혜택 7	학사 및 석사 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 전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전 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전 학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물류유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등 기타 최고위 과정의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담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8
혜택 9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300명 수용 가능한 협회 교육장 임대 할인 혜택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혜택 10
혜택 11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대상 복지 서비스 쿠쿠홈시스템, 보험비교견적,꽃배달 등 렌탈서비스 할인(쿠쿠홈시스), 협회지정업체 보험료비교견적(한국단체보험연합), 전국 꽃배달 회원사 할인(레이디플라워)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12
혜택 13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 참가 협회 내 분과위원회 활동, 신입회원사간담회 워크숍, 봉사활동,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송년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계 최신 뉴스·소식 안내 회원사 전용 네이버 밴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중요한 업계 뉴스를 선별한 뉴스클리핑 서비스와 신속·정확한 주요 정책 소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혜택 14
혜택 15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업계·정책 전문지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무료구독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공식 협회지 월간 프랜차이즈월드 잡지 무료 구독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15

☎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4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 102호(등촌동, 647-26)

회원가입 신청서

정회원 협력회원

신청인 정보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화 번호
	브 랜 드 명	휴 대 전 화 (대표자)
	대 표 자 명	팩 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대표자)
회 사 주 소		
홈 페이지	업 종	
담당 직원	이름 :	Tel :
	가 입 경 로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추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 작 정보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출 금 일 자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 <input type="checkbox"/> 14일 / <input type="checkbox"/> 28일
회 사 명	계 좌 번 호	
대 표 자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월 납 입 액	금 원 (₩)	협 회 계 작 번 호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동의 / 미 동의)

[관련문의] Tel)070-7919-414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jinpark@ikfa.or.kr 주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 102호 우)07563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정기구독 안내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 격월간지입니다.

구독료 안내

값: 1권 15,000원 / (주)KFN에드콤/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3-361492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광고단가 안내

*연 5회 계약시 1회 서비스 (VAT 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크기 (가로×세로mm)
A	표 4(뒷표지)	600만원	1면	전면컬러 226×296 (300dpi 해상도의 ai, psd 파일)
B	표 2 / 표 2 대면	400만원	1면	
C	표 3 / 표 3 대면	300만원	1면	
D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E	내지	200만원	1면	

광고, 콘텐츠, 구독 제안

*광고료 부가세별도

프랜차이즈월드

- 광고 1P 기본 200만원(내지): 연5회 계약시 1회 서비스
- 콘텐츠 2P + 광고 1p: 300만원
- 광고진행시 포털 (네이버, 다음)에 월 1회 기사 게재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온라인 광고

- 배너 월 100만원(연 1,000만원)
- 청약브랜드 기사 게재 (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온라인 광고

- 메인화면 월 200만원 (연 2,000만원)
- 서브화면 월 50만원 (연 500만원)

창업도,

- 누적 조회수: 1,100만명
- 월간 조회수: 30만명
- 프랜차이즈 약 1만2천 브랜드 순위 검색 사이트

창업도

귀사의 발전과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KFN에드콤** ☎02.556.78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9, 706호(두일빌딩 여의도)

국가대표 식품자동포장기

Enterpack®



깔끔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식품 포장, 판매 프랜차이즈의 든든한 파트너!!



www.enterline.co.kr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미국 위생협회 승인



대표번호 031-434-9020